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항공

AIR FORCE MONTHLY



1999

6

통권 제252호

공군본부

C O N T E N T S

공군은 지금			4
이달의 명시		英靈들이여	7
칼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8
공군에 바란다		과학자 공군이 되라	10
생각해 봅시다 I		호국 보훈의 정신을 되살리자	12
생각해 봅시다 II		고(故) 박두원 대위의 서신	14
호국 보훈의 달 특집		6·25 한국 공군 전사	16
이달에 만난 사람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의 주인공을 찾아서	20
Zoom In		빨간 마후라의 영원한 고향	22
한문으로 배우는 충효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	24
기획 특집		한눈으로 보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	25
마음따라 가는 길		공군 선배들의 열이 서린 곳, 강릉	28
I Love Air Force		"저 고독한 남자 중의 남자를 보라"	32
		공군에 쓰는 Love Letter	33
		모형 항공기에 내 꿈을 실어 보내며	34
		잊을 수 없는 공군의 추억	35
Green Air Force		물, 돈 쓰듯 아껴쓰자	36
항공기 열전		꿈을 실현한 항공기 B-2(Spirit)	37
Air Power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38
정보 비행		인터넷 신문을 재미있게 보는 법	40
마음으로 읽는 글		첫 휴가	42
마음의 풍경		부끄러운 나의 고백	44
현충일 추모헌시		유월의 소리	46
나의 생각 나의 느낌		'After you' 와 'Follow me' 의 정신	48
		우리는 20대	50
이달의 공군 역사		6월의 공군 약사	51
신간 안내		위기의 성전1 外 1권	52
법률 여행		자동차에 대한 법률 상식	53
알립니다			54
포토 에세이		찬란한 슬픔으로 가득한 유월의 대지	55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준택

“6월은 현충일과 6·25가 포함되어 있는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 민족에게 국난 극복의 정신을 가다듬게 하는 뜻깊은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릴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후 세대들이 복귀의 잔학한 남침 도발로 인한 민족의 비극을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시기에 그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바로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 의지를 고양하고, 나아가 현재의 어려운 국가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정신적 기반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올해 호국 보훈의 달 행사를 경건한 가운데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하늘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군인은 호국 보훈의 달을 계기로 ‘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새로운 각오를 다져 완벽한 영공 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월간참모회의 훈시」 중에서



대한민국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R.O.K



- 1 참모총장 일본 항공박물관 집견, 의장대 사열 (5. 7)
- 2 참모총장 이임 미 7공군 부사령관 보국훈장 천수장 전수 (5. 13)
- 3 4 참모총장 공군항공군 50주년 기념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임석 (5. 16)

Air Force



정신교육 교안 발표대

1999. 5. 8

공군본부



5/8



6



9



7



- 5 공군본부 정신교육 교안 발표대회 실시 (5. 8)
- 6 군수사령부 군수용어 검색 시스템 개발·서비스 실시 (5. 1)
- 7 공군 군악대 가정의 달 군악시범 행사 실시 (4. 26~5. 8)
- 8 3591부대 모범장병 부모 부대초청 행사 실시 (5. 6)
- 9 3975부대 상주 중동중학교 학생 부대초청 행사 실시 (5. 6)



R.O.K Air Force



10



11



12

13

- 10 3758부대 농기구 수리 대민지원 실시 (5. 1)
- 11 3758부대 전시 대비 태세 종합훈련 실시 (5. 18~20)
- 12 3758부대 공수적하역 훈련 실시 (5. 10)
- 13 3515부대 충주시 금가면 지역 노인 부대초청 행사 실시 (5. 6)
- 14 3107부대 부대 인근지역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돕기 헌혈운동 전개 (5. 1~)

英靈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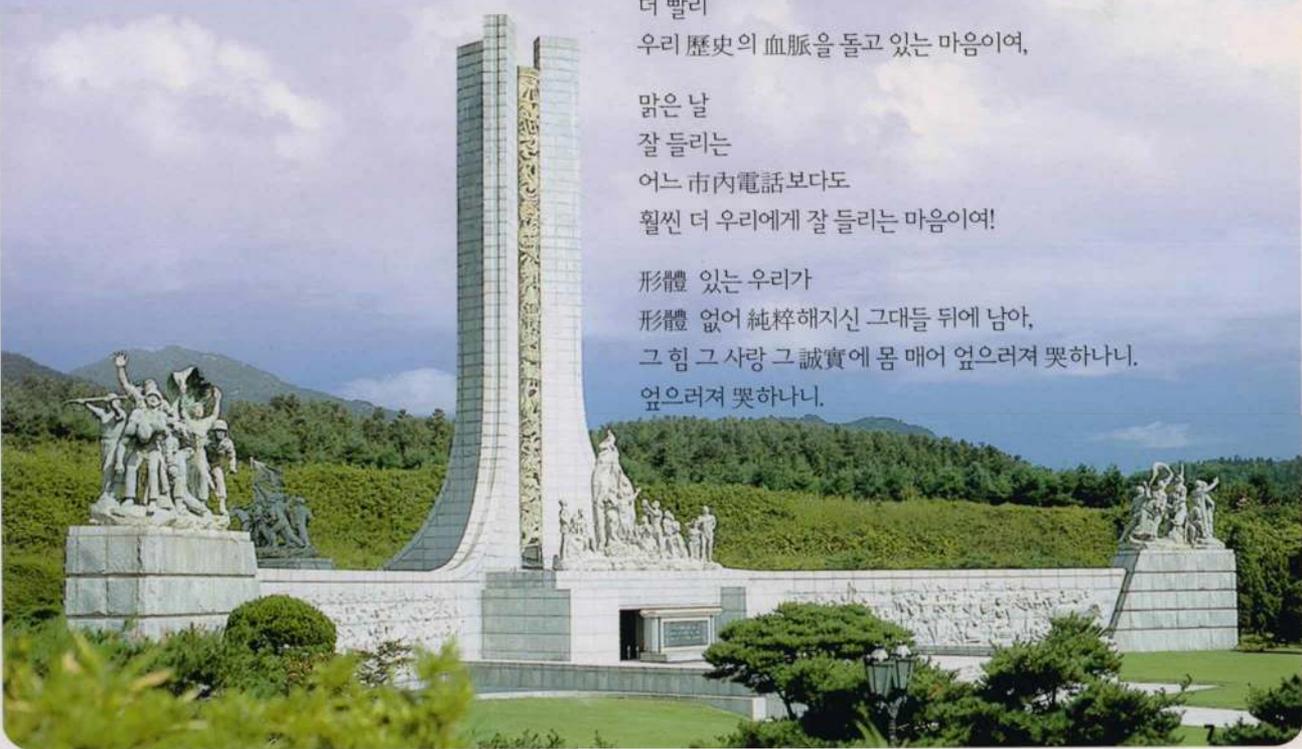
서정주

어느 色彩는
프리즘을 타고
太陽까지 오고 가지만
英靈들이여 英靈들이여,
그대들의 핏빛은
그 선 사랑으로
프리즘보다도
훨씬 더 멀리 멀리 가고 오시리.

마음이여 마음이여,
祖國과 世界의 永遠한 自由와 平和를 지켜
어느 사랑의 宇宙船보다도 더 빨리
더 빨리
우리 歷史의 血脈을 돌고 있는 마음이여,

많은 날
잘 들리는
어느 市內電話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들리는 마음이여!

形體 있는 우리가
形體 없어 純粹해지신 그대들 뒤에 남아,
그 힘 그 사랑 그 誠實에 몸 매어 엮으려져 뿔하나니.
엮으려져 뿔하나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송 병 철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49주년
이 되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에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처절했
던 당시의 악몽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
져만 가는 것 같다.

아직도 가슴에 남은 전쟁의 상처

한국 전쟁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북괴
가 소련과 중공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남한
을 기습 공격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그때 우
리 국군은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
경에서 소련제 탱크와 맞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몸으로 막아내고 또 그들을 격
퇴하는 데 선두에 서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난 우리 겨레였지만 한국 전쟁만
큼 인명의 손실과 재산 피해,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킨 사건은 일찍이 없었다. 더군다나 우리 민
족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형제들의 피를 요구하는 동족간의 전쟁으로 치욕적이었으며,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특히 우리 민족
은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나 관군과 함께 항일(抗日), 반공(反共) 정
신으로써 나라를 지키기에 살신 보국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의 상처는 한없이 깊고
짙은 것이어서 4백여 년 전의 임진왜란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흔, 그리고 참혹했던 6·25한국
전쟁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에이게 하고 있다.

호국의 넋을 위로하는 보훈의 달

6월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
하는 보훈의 달이다. 그들의 빛난 전공(戰功)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 최대의 참상인 한국 전쟁, 그 수백만의 희생자를 냈던 전대미문의 동족간
싸움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으랴.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부모 형제를 잃
은 전쟁 고아만도 수십만이었고 전쟁 미망인과 상이용사가 수십만에 이르렀으니, 그 참상은 가



해마다 찾아오는 6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내일의 참된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광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그들이 성장하여 장년이 되었지만, 그들 가슴에 응어리진 한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전쟁 도발자들이 저지른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

해마다 찾아오는 6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내일의 참된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광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이나 미래의 희망찬 설계에는 그만큼의 피땀어린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반세기 전, 이 땅에서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고귀한 피를 흘리신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희생이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욱 고결하고 값진 희생이 되도록 보답하는 길이며, 또한 내일을 기약하는 다짐과 결의가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것이다.

전쟁 옹호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 억제력의 확보가 초미(焦眉)의 과제이며 평화 유지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에 이 시각에도 우리는 민족의 자존과 평화를 위하여 휴전선과 쪽빛 바다와 우리 영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는 곧 평화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이다. 또한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동족끼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해와 포용력을 계속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대비책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북괴군의 양민 학살



T-6전국기를 조종한 10인의 조종사



6·25 당시 비행 조종 교육

과학자 공군이 되라

세계일보 논설위원 이 재 승

우리 공군은 연구하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첨단 무기를 다루는 공군은 기술자 단계를 뛰어넘어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세계 공군사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공군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소년 시절에 관람했던 국산 영화 <빨간 마후라>를 떠올린다. 감수성 예민하던 시절 나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영화를 관람했다. 특히 기억되는 장면은 “조종사를 사랑하는 여자는 못된 여자예요.”라는 여자의 말에 “그렇지만 멋진 사람일 거다.”라고 대답하는 편대장의 모습이다. 아마 그때는 요즘과 달리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성의 직업을 가리키는 이른바 3D 직종 가운데 전투기 조종사도 속했는지 모른다.

이 땅을 지켜온 남아들, 그리고 아낙네들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세계 제일의 긴장도를 자랑(?)하는 곳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초강대국들이 위치해 있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익까지 관련돼 있는 이 지역에선 옛날부터 강대국들의 싸움이 잦았다. 한반도는 대륙에 ‘챔피언 쟁탈전’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새우등이 터지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이 땅의 남아들은 산천에 피를 뿌리고 뼈로 성채를 쌓으며 이 땅을 지켜왔다. 아낙네들은 지아비와 아들을 잃고 마냥 서럽게 울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5천년을 살아왔기 때문일까. 한국인은 사상적 깊이가 없고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줄 모르는 민족이 되었다. 휴전선 너머 북쪽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전쟁할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남쪽에는 불과 46년 전의 전쟁을 까맣게 잊은 채 희희낙락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아마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여자는...’ 이라거나 ‘군에 간 애인을 기다려 주는 여자는...’ 소리를 하는 여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공군을 사랑하는 여인은 '멋진 여인'

그러나 조종사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멋진 여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이같은 생각은 몇 해 전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돌아보며 더욱 굳어졌다.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초긴장 상태에서 복귀는 물론 주변 초강대국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공군 장병들을 보면서, 나는 '공군에게는 지금이 평화 시대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출격하는 조종사들의 긴장감과 책임감은 어느 타군과 비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후 나는 그들의 애인 또는 아내에게 자신있게 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전투기를 몰 때 잡념을 가질 수 없듯이 오로지 당신 한 사람만을 '용감하게' 사랑할 것이라고.

역사에서 교훈 얻는 공군이 되기를...

이토록 자랑스런 삶을 살고 있는 공군 장병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그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줄 아는 공군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다.

기록에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임진왜란 때 해군의 거북선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전라도 김제 사람인 정평구(鄭平九)는 당시에 이미 비행기(飛車)를 발명, 진주성 싸움 때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오늘날 이조 때 비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정평구의 후예인 우리 공군은 연구하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첨단 무기를 다루는 공군은 기술자 단계를 뛰어넘어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세계 공군사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공군처럼 뛰어난 과학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민족의 미래와 생존은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 ❶

호국 보훈의 정신을 되살리자

지금 우리의 국가 방위를 튼튼히 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우선의 길은 우수한 장비와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호국 선열들이 가슴에 품고 산화했던 호국 보훈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또다시 호국 보훈(護國報勳)의 달을 맞았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이국(異國)의 하늘 아래서 독립 운동의 시련을 감내하다 해방된 조국의 모습조차 못 본 채 한많은 세상을 떠난 분들...

동족을 향한 복괴의 무력 도발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죽음 속을 헤맬 때 맨손으로 그들과 맞서다가 사라진 호국의 영령들...

그리고 자유의 사도(使徒)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월남 땅에서 산화한 영령들... 6월은 그분들을 생각하며 머리 숙이는 달입니다.

호국 선열들이 남겨 준 교훈

우리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뒤 광복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까지,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치르며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기까지 우리는 험난한 역정을 거둬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위기의 고비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역사의 소명 앞에 한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지키려 했던 호국 선열이 있었기에 오늘의 번영과 발전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호국 선열의 희생 정신은 민족 정기로 승화되어 자유 대한민국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립 묘지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울리는 추모 사이렌에 진심으로 묵념을 올리며, 호국 선열이 우리에게 남겨 준 교훈과 정신을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호국 선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단지 나 자신만의 편안함과 행복이라면 우리는 조국과 호국 선열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커다란 아픔의 역사를 남겨줄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 방위를 튼튼히 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우선의 길은 우수한 장비와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호국 선열들이 가슴에 품고 산화했던 호국 보훈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되살려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루어 온 발전과 번영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맞이하는 6월의 아침

군인으로서 맞이하는 6월의 아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용히 호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만약 오늘 우리에게 그런 뜻하지 않은 국가의 어려움이 닥쳤다면 과연 선열들처럼 일신(一身)을 던질 수 있을지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선열들의 구국(救國)하던 마음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반성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겠다는 필승의 각오가 보훈의 뜻에 합당한 길임을 깨달으며 6월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

8전비소위 김도형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길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조사된 청소년들의 안보 의식 실태를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자발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대답(9.2%)보다는 영장을 피해 피난을 가거나(32%), 아예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대답(14.2%)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해도 이러한 결과는 우리

고(故) 박두원 대위의 서신

“여하튼 출격이란 적 섬멸일세. 내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출격 회수를 거듭할 때마다 적개심이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일세. 한 번 출격하면 두 번 하고 싶고, 세 번 출격에서 돌아오면 네 번째의 출격이 안타깝도록 기다려지네.”

이 글은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이 남침함으로써 조국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일본에서 급히 귀국하여 멸공 전선에서 맹활약하다 조국의 하늘에서 애석하게도 장렬히 산화한 고 박두원 대위의 편지이다.

박대위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일본 다찌아라이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2차 대전에도 강제로 참전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에 계속 거주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6·25가 발발하자, 미약한 우리 공군이 구식 경비행기와 사제 폭탄으로 악전 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끓어오르는 조국애로 참전, 멸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분연히 귀국하여 1952년 2월 공군에 입대했다. 박두원 중위는 1952년 2월 F-51 무스탕 전폭기를 타고 첫 출격을 시작하면서부터 88회를 출격하기까지 적의 진지와 보급로 차단, 지상군 지원 작전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출격에도 박중위는 지칠 줄 모르고 동료 조종사와 함께 1952년 8월 2일 마지막 출격길에 올랐다. 목표는 내금강에 위치한 장안사. 그 일대에는 무수한 적의 자동화기 진지가 있었고 동부 전선의 보급 집결지로서 가장 중요한 요새지였다.

이날 따라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지시된 고도를 울리지 못하고 4천 5백 피트로 날았다. 운고는 약 5천 피트, 가랑비가 약간씩 내리는 악천후. 경포대와 주문진을 지나 속초 상공에 이르렀을 때 적의 지상 포화는 맹렬하게 치솟았다.

그 순간 박중위의 3번기가 번쩍하는 섬광을 내며 기체가 없어졌다. 순간의 여유도 없이 특수 폭탄만을 장전한 박중위와 애기(愛機)는 공중 폭발하였다. 박중위는 순간 비상 탈출을 기도, 낙하산을 폈지만 그때는 이미 온몸에 파편을 맞은 뒤였다.

조국의 위기에 오로지 구국 일념으로 현해탄을 건너 멸공 전선에 나섰던 박두원 중위는 꽃다운 젊음을



고(故) 박두원 대위

아낌없이 조국 하늘에 바치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호국의 신으로 승천한 것이다.

이후 동료 조종사들은 고인의 영정을 안고 교대로 출격하여 전투 조종사의 영예인 1백회 출격을 원수함으로써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인을 기렸다.

다음은 그가 생전시에 계속되는 출격에 앞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후배 조종사 이희근 중위(15대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편집실



친애하는 나의 희근이!

군이 보내준 글월은 나에게 기쁨과 끝없는 반가움을 가져다 주었네. 나는 아무 연고 없으며 원기 왕성하게 공산군 격멸에 매진하고 있으니 안심하여 주게.

희근이!

나의 이 감격을 자네는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며 또 더불어 기뻐해 줄 줄 아네. 멀리 산너머 구름이 구름을 헤치고 미명의 새벽이 찬연할 때까지 이들이 그리 쉽게야 사라 질 리 있겠는가.

희근이! 나의 운명을 하늘에 걸고 나의 마음은 하늘님께 맡기고 무언 실행으로 적 공산군을 격멸하겠네.

싸움은 승리를 전제로 한 평화와 건설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네. 승리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 공동의 복리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 임무라면 확실히 우리들도 적이나마 평화의 사도임에 틀림없을 거야.

이것이 과대 평가한 나의 자부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금지를 가져야 하네. 푸른 제복의 금지, 우리는 이러한 금지에 살고 금지에 죽세.

북녘 땅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그들의 독정 밑에 울고 있는 선량한 동포가 무수함을 생각 할 때 가슴을 도려내는 것만 같네.

친애하는 희근이. 두 번 다시 이 비극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적이 하나의 시련을 강행한다면 둘의 시련을 각오해야겠네.

자네들의 무언의 애국을 바라네. 말 없고 소리 없는 묵묵한 실천만이 참다운 애국이 아니겠는가?

자네는 나의 출격 소식을 고대한다지만 그것은 자네 상상에 맡기겠네.

여하튼 출격이란 적 섬멸일세. 내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출격 회수를 거들할 때마다

적개심이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일세. 한번 출격하면 두 번 하고 싶고, 세 번 출격에서 돌

아오면 네 번째의 출격이 안타깝도록 기다려지네. 폭탄이 없고 로켓이 없으면 눈 아래

보이는 적 고사포를 발길로라고 짓밟아 버리고 싶은 마음 어찌할 수 없네.

곧 출격하게 되네. 희근이, 날 믿어주게. 굳은 결의로 조국을 지키세. 이것은 조국이 우

리 젊은이들에게만 맡겨준 위대한 사명이며 영광이 아니겠는가. 전쟁은 기필코 이

겨야 된다는 걸 재삼 재삼 강조하고 싶네. 침략자 공산 무리를 분쇄하고 내 조국, 아

니 자유민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한국 청년의 금지를 다하세.

그럼 다음을 약속하면서 건투를 비네.

1952년 3월 1일 두원

선배 공군들의 피와 땀이로 얼룩진

6·25 한국 공군 전사

戰史

우리 공군의 초전 3일간 작전은 열세한 공군력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싸웠다고보다는 오직 조국 수호를 위해 맨주먹으로도 싸워 이기고 말겠다는 필사의 신념으로 임했던 것이다.

신념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공군'

오늘날 우리 공군이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공군 선배들의 피와 땀의 대가였다. 특히 6·25 전쟁에서 공군 선배들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거의 명목뿐인 공군력으로 살신 성인의 보국 정신으로 북괴군과 싸워 나라를 지켰다.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 기간중 한국 공군은 전쟁 승리와 전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개전 당시 한국 공군은 경항공기 22대와 병력 1,872명으로 북괴군의 남침을 저지하여야만 했고, 1950년 7월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전투에 임했으나 전투 비행 능력의 부족과 작전 및 보급 지원의 부족으로 미공군 지원하에 전투 검 훈련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전쟁중에도 우리 국토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하에 공군 지휘부는 공군력 증강이라는 목표를 수립,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51년 10월부터는 한국 공군 독자적으로 우리 지상군에 대한 후방 차단 및 근접 항공 지원 작전 능력을 갖추어 전쟁 후반 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급속도로 성장한 북괴의 공군력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일본에서 귀국한 이활(李 闊· 당시 30세· 비행 시간 2,000시간) 등 항공 관계 인사 50명은 일제 연습기 14대와 새로이 조립한 3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신의주 항공대'를 창설하였다. 북괴 공군은 이를 기초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는데, 1947년 4월 진남포에 '평양학원'을 설립하여 여기에 비행과를 두고 조종사 훈련을 본격화하였으며, 1948년에는 용강 비행장에서 최초로 '항공부대'를 창설하여 항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1949년 초에는 항공부대를 인민군 예하의 독립군으로 정식 편입하고 '인민 항공군'으로 발족시켰다. 1949년 초에는 소련과 '조소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의거 소련이 기술자 양성 및 실전용 전투기를 공급함으로써 북괴 공군은 급속도로 전력을 확충하게 되었다. 1948년 8월에는 소련의 YAK-9 전투기 100대와 IL-10 전투기 71대 등 총 198대의 항공기와 조종사 200명을 포함한 병력 2,200명으로 항공

부대를 비행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1950년초에는 다시 이를 비행사단으로 증편하여 그 산하에 요격기 연대, 습격기 연대, 교도 연대 등 3개 연대를 두었고, 6·25를 앞두고 그들의 비행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3·8선 부근에 3개의 기지 신설을 완료하였다.

전투기도 없이 적을 저지한 공군 선배들

전쟁이 발발하자 공군은 6월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지에 공군 작전 지휘소를 설치하여 신속히 전투 태세를 갖추는 한편, 전황을 검토한 후 당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 항공기 22대를 동원하여 북괴군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비행단장

우세한 적을 상대로 싸웠다고보다는 오직 조국 수호를 위해 맨주먹으로도 싸워 이기고 말겠다는 필사의 신념으로 임했던 것이다.

L-형 및 T-6 경항공기로는 적 전차(T-34)를 파괴할 수 없었던 공군은 미 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F-51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비롯한 9명의 조종사를 선발하여 6월 26일 오후 일본 이다즈게 기지로 파견하였다. 이다즈게 기지에서 F-51 기종 전환 훈련을 받던 중 이근석 대령은 미 5공군사령관 패트리치 소장에게 “한국의 전황이 불리한 이때 한시라도 일본에서 훈련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귀국을 요청, 7월 2일 이다즈게 기지에서 F-51 전투기 10대를 인



1·4후퇴시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



적진으로 출격하는 F-51 무스탕 전투기 편대



전투 출격 신고하는 조종사들

이근석 대령은 T-6기 10대를 3개 편대로 편성하여 각기에 국산 폭탄(15kg) 8~10개와 수류탄을 싣고 이날 오후 6시에 이륙하여 포천과 동두천 방면으로 남하하는 적 지상군에게 200피트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후방석에 있던 관측사가 폭탄을 손에 들고 목측으로 적 전차와 차량에 투하하였다. 첫날 공격이 비효과적임을 인식하여 T-6기 양날개에 8개의 폭탄걸이를 장착(L-형 항공기에는 장착이 불가능하였음)하고서 다음날 적의 주공격 방면인 동두천과 포천 지역으로 출격하여 적 전차와 차량 및 적병들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필사적인 공격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폭탄 274개를 전량 소모함으로써 6월 27일에는 작전이 중지되었다.

우리 공군의 초전 3일간 작전은 열세한 공군력으로

수, 직접 지휘하에 현해탄을 건너 대구 기지까지 공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대구 기지에 도착한 F-51 전투기 조종사들은 7월 3일 10시 F-51 전투기 4기 제1편대가 영등포에서 수원 방면으로 남하하는 북괴군 제4사단 전차부대를 공격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공군의 전투기 출격이 시작되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F-51이 출격하여 적의 연료 보급소와 차량 등을 파괴하고 적병 30여 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이근석 대령이 지휘하는 4기 편대가 12시 30분경 안양 상공에서 적 전차와 차량 행렬을 목표로 급강하 공격하던 중 적 대공화기에 피탄되어 적 전차에 자폭함으로써 34세를 일기로 장렬히 산화하였다. 이후 7월 26일까지

F-51 전투기들은 총 91회의 출격을 감행하여 탱크 7대, 차량 및 트럭 17대, 탄약 및 연료 보급소 18개소를 파괴하고, 적병 3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국 공군의 단독 출격 작전

한국 공군의 역사적인 단독 출격 작전은 1951년 10월 11일 아침,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영환 대령의 직접 지휘하에 F-51 전투기 4기 편대가 인제 동북방 당장곶 공격을 필두로 개시되어 동년 11월 28일까지 원산, 고성, 회양, 신고산 등지의 적후방 도로, 교량, 탄약 및 연료 집적소, 건물 등을 공격 목표로 출격하였다.

제10전투비행전대는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될 때까지 적 후방 보급로 차단 작전, 도시 폭격 작전, 적 보급물 집적소 폭격 작전, 공지 합동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 철교를 폭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4,000피트 고도에서 강하하며 1,500피트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초저공 공격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월 15일에 F-51 전투기 2개 편대 6대가 출격하여 적의 강력한 대공 포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승호리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철교 차단 성공 여부를 의심하던 미 5공군은 한국 공군이 단 14초의 출격으로 승호리 철교 차단에 성공하자 한국 공군이 이룩한 전과를 크게 찬양하였다.

평양 대폭격 작전은 북한에 대량 공중 공격을 가하여 전쟁 능력과 의지를 말살시켜 UN 측이 제시한 휴전 조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새로운 항공 전략인 항공 압박(Air Pressure) 작전의 일환이었다. UN군은 평양을 폭격하면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



F-51 전폭기 출격 준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



평양 출격을 협의하고 있는 주영복, 육만호 대위 등의 모습



한국 공군 최초 김두만 소령 100회 출격 기록 수립

특히 이 기간중 공군 역사에 빛나는 전과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과 평양 대폭격 작전이었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한 철교로서 적의 군수 물자가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되는 적 보급의 요충지였다. 미 5공군은 이 철교를 차단하기 위해 500여 쏘티 이상 출격했으나 폭파하지 못하자 한국 공군에 이 임무를 인계하였다.

이 임무를 인계받은 강릉 기지 주둔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2년 1월 12일에 F-51 전투기 2개 편대 8대를 출격시켰으나 강력한 적의 대공 포화로 실패하고 말았다. 첫 출격에 실패한 조종사들은 여러 가지 전술적 문제를 논의한 끝에 종래의 미 공군 전술 교리에 의해서는

단하고 평양의 군사 목표물에 대공습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였다. UN 공군은 1952년 7월 11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어 8월 29일에도 1,08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날 10전투비행전대도 3개 편대(36대)의 F-51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리 공군에 할당된 평양 군사 목표 2개소(평양금속공장, 평양철도조차장)를 완전 파괴하였다.

제10전투비행단의 창설과 작전

공군은 '일면 전투, 일면 전력 확장'이라는 목표하에 전력 증강에 노력한 결과 1953년 2월 병력 9,814명에

F-51 전투기 49대를 포함하여 각종 항공기 35대 등 75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강릉 기지에서 작전중인 제10전투비행전대를 기간으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 사천 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던 제1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함으로써 한국 공군은 2개 비행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2월 15일부터 휴전 성립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항공 작전은 동부 전선의 고성으로부터 금성, 금화, 철원, 판문점을 연결하는 북방 전선에서 전투중인 한국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작전과 적 후방 차단 작전에 집중되었다. 이 기간중 주요 작전으로 1953년 3월 26일 제10전투비행단은 한국군 제1군단 제15사단의 요청에 따라 351고지(고성 남방 7.5km지점)의 지상군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F-51 전투기 4개 편대 16대가 출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 작전은 T-6 항공 통제기와 F-51 전투기간의 유기적인 협동 작전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 공군의 대표적인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이었다.

북괴군의 마지막 공세 기간중인 6월 1일부터 7월 27일 휴전일까지 우리 공군은 실제 출격일수 21일간에 총 758회를 출격하였고, 그중 78%인 666회를 근접 항공 지원 작전에, 12%인 92회를 후방 차단 작전에 투입하였다. 특히 6월 14일과 30일에는 1일 출격 회수가 50쌍을 넘었고, 7월 17일에는 F-51 전투기가 77쌍을 출격하여 개전 이래 1일 최고의 출격 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쟁 마지막 날인 7월 27일에는 17개 편대가 68쌍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한국 공군의 종합 전투 기록

약 3년간의 전쟁 기간중 한국 공군은 약 1년 반('50. 6. 25~'51. 10. 10) 동안은 UN 공군의 한 전투 단위 부대로 싸우지 못하고 우리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 5공군에서 파견한 미 제6146기지 부대의 조종사들과 함께 출격하며 교육 훈련 및 전투 능력 배양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후 1951년 10월에 가서야 비로소 1개 전투비행대대 규모의 전력으로 단독 출격 작전을 시작했고, 이후 전투와 전력을 확장해가며 나머지 전쟁 기간

('51. 10. 11~'53. 7. 27) 동안 UN 공군의 한 전투 단위 부대로서 또한 명실공히 한국 공군으로서 항공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전쟁 기간중 전력은 병력이 전쟁초 1,897명에서 11,461명으로 약 6배 증가했고, 출격 조종사도 115명 중 39명이 100회 이상의 출격 기록을 수립하였다. 항공기도 각종 항공기 198대(L-형 50대, T-6 14대, C-47 수송기 1대, F-51 133대)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전력으로 한국 공군은 한국 전쟁에서 UN 공군 중 제2위의 전투 출격 기록을 수립하였다. 즉, F-51 전투기가 총 8,495회의 출격을 감행하였는데 그중 후방 차단 5,337회, 근접 항공 지원 2,656회, 대지 공격 258회, 공비 토벌 198회, 기타 46회를 출격하였다.

전쟁중 종합 전과는 건물 1,770동, 차량 459대, 우마차 53대, 탄약 및 연료 집적소 1,285개소, 철교 및 인도교 124개소, 터널 108개소, 포진지 521개소, 철도 차단 1,014개소 등을 파괴 또는 파손하고 적병 889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우리 공군의 피해 사항은 항공기가 전투중 69대(F-51 39대, 경항공기 30대), 훈련중 48대(F-51 29대, 경항공기 19대) 등 총117대가 파괴되었고, 조종사 39명(전투중 22명, 훈련중 17명)이 전사 또는 순직하였다.

한국 전쟁에서의 공군의 전투사는 곧 건군사(建軍史)이기도 하다. 우리 공군은 전투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인 결과 휴전시에는 전력 규모가 병력 1,100여 명에 2개 비행단, F-51 전투기 80여 대를 보유한 공군력으로 성장하여 공군 독립시 명목뿐인 공군에서 실질적인 공군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6·25 전쟁에 참가한 공군 장병들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공군본부 3급 정 영 섭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의 주인공을 찾아서

옥만호 전 공군참모총장

“동기생인 나창준 대위가 피격되어 자폭하는 광경을 보면서 동기생이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구해줄 수 없음을 가슴 속 깊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행에 임했습니다.”



우리 나라 공군 전사(戰史)에 있어 가장 큰 전과가 있다면 그것은 6·25 전쟁 당시 북괴군의 중요 보급로 중 하나였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이다. 당시 UN 공군이 이 철교를 차단하기 위해 500여 회 이상 출격하였으나 폭파하지 못하자 한국 공군에 이 임무를 인계하였으며, 옥만호(玉滿鎬·73세·당시 대위)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8명의 조종사가 단 14회의 출격으로 폭격 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공군의 살아 있는 역사로서 이 제는 미수(米壽)의 나이를 바라보는 옥만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지금도 당시 못지않은 젊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호담(玉전총장의 號) 항공우주전시장을 설립하는 등 영원한 공군인으로서 국민들의 항공 사상 양양을 위해 진

력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

군에 계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입니까?

6·25 전쟁 당시 육·해·공군 총사령관인 정일권 장군이 일선 부대를 시찰하기 위해 비행 시간이 많은 조종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T-6(건국기)를 타고서 정장군님과 함께 일선 시찰을 하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구에서 강릉으로 이동하면서 시찰을 할 때였습니다. 폭설로 인하여 강릉 비행장 주변에는 착륙을 할 수 없었고 대구로 회항할 연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정보 브리핑시 횡성(원주) 비행장 주변이 적도 아군도 없는 진공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불시착하였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항공기를 활주로 끝 부분에 감추고 나서 우리 육군에게 정장군 일행을 인계하고 비행장에 전복되어 있던 C-47 수송기의 연료를 빼서 T-6에 보충하고서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UN 사령관으로부터 Silver Star(銀星勳章·미국 무공훈장 중의 하나)를 받았습니다.

6·25 당시 출격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비행에 임하셨는지요?

당시 진남포 제련소 공격 임무를 부여받고 출동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의 성공 (위), 6·25 전쟁 당시 조종복과 비행 장구 (오른쪽)

하여 작전 수행중에 친했던 동기생인 나창준 대위가 피격되어 자폭하는 광경을 보면서 동기생이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구해줄 수 없음을 가슴 속 깊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행에 임했습니다.

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에 임하셨을 때 당시의 심정을 회고하신다면?

글쎄요, 그것은 조종사로서의 임무였고 저는 단지 생명은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하고서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남쪽에 있는 북괴군의 유일한 보급로 중 하나였습니다. 철교가 낮아서 공격이 힘들었고 북괴군의 저항 또한 엄청났지요. UN군의 폭격 실패 후에 우리 한국 공군에 인계된 작전이라 꼭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1차 공격 작전에 실패하고서 2차 작전에 출격하여 초저공 폭격 작전을 펼쳐 성공했는데, 3번기의 폭격 성공 소리를 듣고 가슴 뿌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현재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현재 아·태문화사회연구소 고문으로 10여 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항공 인구의 저변 확대와 21세

기 항공 우주 시대를 이끌어 갈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한국 항공소년단을 창설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덕목 중에서 '성실'을 제일로 꼽고 싶습니다. 공군은 과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군은 최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성실한 과학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군의 임무는 초전에 적의 항공력을 파괴함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한 전장 환경을 보장하는 것, 즉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항공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세한 항공력을 건설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첨단 장비 등을 도입하여 공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대담·정리/공군본부 대위 박 상 은

조국 수호의 최선봉 제10 전투비행단

빨간 마후라의 영원한 고향

10전비 중위 류 광 춘



우리 공군의 역사 속에서 제10 전투비행단은 창군 초기 공군의 전투 부대로서, 6·25 전쟁에서 공군 전사에 빛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부대로 기록되어 왔고 현재에도 수도권 및 서북 영공 방위의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예 부대라는 명예를 간직하고 있다.

공군 전사에 영원히 빛나는 부대

제10전투비행단은 창군 당시 공군 비행단으로 출발하여 1951년 8월 1일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로, 그

리고 1953년 2월 15일 강릉 기지에서 제10전투비행단으로 창설되었다.

오늘날 제10전투비행단이 빨간 마후라의 영원한 고향이 된 것은 6·25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한국 공군의 유일한 전투 부대에서 출발한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 한 대도 없이 전투에 임한 우리 공군은 1950년 7월 2일 F-51 무스탕 전투기를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하여, 미 조종사들과 합동 출격하여 전투 능력을 배양하고 전력을 증강한 끝에 1951년 10월 11일

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항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공군의 주력 전투 부대가 제10전투비행단으로서 강릉 기지에서 한국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을 전개하였는데, 휴전시까지 적 후방 차단 작전(5,337회)과 근접 항공 지원 작전(2,656회), 대지 공격(258회) 등 총 8,495회의 출격을 감행하여 건물 1,770동, 차량 459대, 우마차 53대, 탄약 및 연료 집적소 1,285개소, 철도 차단 1,014개소 등을 파괴 또는 파손하고 적병 889명을 사살하였다.



제10전투비행전대의 강릉 진주를 환영하는 강릉 시민



제공호의 힘찬 이륙



이철수 대위의 귀순



F-4 팬텀의 편대 비행

제10전투비행단의 지휘관·참모를 비롯한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후방 분야의 모든
장병들은 오늘도 조국 영공 방위의
최일선·최선봉·최정에 부대라는
금지과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F-86F의 편대 비행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10전투비행전대 시절인 1952년 1월에는 편대장인 윤응열 대위와 옥만호 대위가 이끄는 F-51 편대가 UN 공군의 500회 출격에도 수행하지 못했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단 14초의 출격만에 초저공 비행 의한 폭격으로 완수함으로써 한국 공군의 용맹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또한 평양 대폭격, 공비 토벌 작전, 근접 항공 지원 작전, 후방 차단 지원 작전 등에서도 다양한 전과를 이룩하여 6·25 전사에 빛나는 기록을 남겼다.

최선봉·최정에 부대의 자부심

전력면에서의 성장과 함께, 10전비는 서북부 영공방위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로서

영공방위에 만전을 기해왔다. 1967년 4월 덕적도 대간첩 작전을 필두로 그 동안의 각종 대간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0년 12월 북괴 미그15 영공침범 방공작전, 1983년 이용평 대위 및 1996년 이철수 대위 귀순 유도작전 등 각종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영공방위에 한치의 허점도 없음을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였다.

또한 1996년 2월에는 예하 101대대가 단일 대대에서는 세계 최초로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 기네스북에 기록됨으로써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98 전투 지원 능력 평가 대회에서 종합 최우수 부대로 선정됨으로써 정예 비행단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제10전투비행단 전장병들은 이러한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런 정예 공군의 건아로서 또한 조국 영공 방위의 최일선 전투 기지로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모형 항공기 대회와 기지 개방 행사, 수해 지역 폭발물 처리 지원, 대민 의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대민 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강한 공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군력은 전시에는 승리의 핵심 전력일 뿐 아니라, 평시에도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제10전투비행단의 지휘관·참모를 비롯한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후방 분야의 모든 장병들은 오늘도 조국 영공 방위의 최일선·최선봉·최정에 부대라는 금지과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휘관을 포함한 제10전투비행단 전장병들의 이러한 노력 속에서 오늘까지 이어온 제10전투비행단의 빛나는 전통은 앞으로 우리 공군의 역사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 담 구

知	足	願	云	止
알 지	발 족	원할 원	이를 운	멈출 지
(총8획·矢부수)	(총6획·足부수)	(총19획·頁부수)	(총4획·二부수)	(총4획·止부수)

우리 나라 역사에는 침략해 온 적군과 맞서 싸운 기록이 숭하게 많지만 고구려 영양왕 23년(612년)에 쳐들어온 수(隋)나라 대군을 참패시킨 살수대첩(薩水大捷) 만큼 통쾌하게 이긴 예는 없었다.

초대국(超大國)의 황제로 군림한 수나라 양제에게는 동쪽의 고구려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에 동원한 병력은 자그마치 1백13만 3천8백 명. 전군(全軍)은 전진 기지에서 매일 1개 군단씩 순서에 따라 출발했는데 전군이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소요될 정도였다.

수나라 대군을 지휘한 장군은 우문술(宇文述)과 우중문(于仲文). 뜻밖에 전쟁이 일진 일퇴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조급해진 양제는 평양을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별동대(別動隊) 30만 5천 명을 압록강 서쪽에 집결시켰다. 엄청난 대군의 힘으로 평양성을 단숨에 함락시켜 끝장을 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먼 길을 행군해 오느라 피로가 겹친 수나라 군사는 살수[청천강]를 건너 평양을 눈앞에 둔 때에는 이미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이때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직접 적진에 들어가 항복하는 척하고 형세를 살피고 돌아왔다. 속은 것을 안 적군은 평양성 30리 밖까지 추격해 왔다. 적을 유인하는 것에 성공한 을지문덕은 적장 우중문에게 조롱하는 시 한 수를 보냈다.

그대의 신통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통했노라(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전승의 공은 이미 높으니(戰勝功既高·전승공기고)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원하노라(知足願云止)

피임에 빠진 것을 깨달은 적군은 후퇴하다가 살수에 이르러 군사가 반쯤 건넜을 때 을지문덕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이 갑자기 맹공격을 가하니 살아서 돌아간 자는 불과 2천7백 명에 불과했다. 이 싸움을 살수대첩이라고 일컫는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양제는 이후 두 번 더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실패가 수나라를 멸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❶

한눈으로 보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 제2차 세계 대전 후기의 항공기

제2차 세계 대전의 후반에 개발된 항공기는 미국의 P-51 무스탕, 콜세어가 있으며, 독일의 포케-볼프 Fw190와 구소련의 La-5 등이 유명하다. 1차 대전 때의 항공기는 거의 정찰 및 전투 임무로 활약하였고, 폭격은 원시적인 수법으로 수류탄을 투하하는 정도의 전술적 목적으로만 운용되던 것이 2차 대전에 들어서는 폭격기가 특별히 맹활약을 하였다.

정찰의 시대에서 폭격의 시대로

특히 전쟁 말기에는 전선 부근에 배치된 적 지상군 부대를 공격하던 전술 폭격의 형태를 넘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직접적인 전투 요원 및 작전 시설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간접적인 전쟁 지원 요원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하였으며, 적 국력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의를 상실케 하는 전략 폭격에 대량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2차 대전 당시의 주요 폭격기로는 독일의 하인켈 He-111과 용커스 Ju-88, 영국의 아브로·랭커스타와 힌드레 페이지·해리팩스, 미국의 B-17과 B-29 등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중의 폭격기에 있어서 특기할 점은 폭탄 투하 방식의 개선으로서, 조준 장치를 사용하여 정조준 폭격을 실시함으로써 폭격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레이더를 이용하여 폭격기를 목표 상공으로 유도, 표적을 확인케 함으로써 야간이나 구름이 낀 날씨에서도 정확한 폭격이 가능하여 피해 효과가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 North American P-51 Mustang

노스아메리칸 P-51 무스탕, 미국

P-51 무스탕은 제2차 대전중의 가장 큰 피스톤 엔진으로 제작된 전투기이다. 1939년 영국은 우수한 전술적 항공기의 필요성에서 North American 항공 회사에 개발을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제작된 P-51 무스탕은 총류형 에어포일을 사용했으며, 항속 거리가 길어서 장거리 폭격기의 호위기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 전쟁에도 투입이 되어 우리 공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무스탕은 총 15,686대가 생산되었다.



2. De Havilland Mosquito

드하빌랜드 모스키토, 영국

1937년 알베트로스 수송기의 모형을 본떠 고속 경폭격기인 모스키토기를 설계할 때, 그 당시 항공 전문가들은 드 하빌랜드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개의 엔진을 사용하여 고속 비행기로 설계되었는데, 당시의 방공 무장들을 무력화시키는 혁명적인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체는 완전히 전나무와 합판을 결합하여 제작할 계획이었다. 만약 모스키토기의 생산이 예정대로 실행되었다면 전쟁을 좀더 일찍 종식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1941년 9월 비무장의 모스키토가 프랑스의 대서양 해안을 성공적으로 정찰한 후 비행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 비행기는 독일의 조종사들을 조롱하며 유유자적 날아갔는데, 이에 영국 공군은 깊은 감명을 받고 이 기종 105대를 폭격기로 사용하였다.

3. Boeing B-29 Superfortress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 미국

2차 대전중 가장 뛰어난 전략 폭격기라 평가되는 B-29 슈퍼포트리스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시킨 기종으로 널리 알려졌다. B-29의 개발을 주도했던 연구는 193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인 디자인은 1940년에 나왔다. 보잉사는 1940년초에 폭격 임무의 다양성에 따른 미 육군 항공대 폭격 편대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장거리 중형 폭격기에 맞는 기체 제작에 노력을 기울여 결국 XB-29를 내보였고, 이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채택되었다. 이는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3개의 여압실을 보유하게 된다. 조종사와 폭격수, 일등 정비사를 수용할 수 있는 비행실을 제공하고, 관측사와 폭격수를 위한 좌석을 마련했으며, 이는 폭탄실을 통해 연결된다. 나머지 여압실은

4. Grumman F-6F Hellcat

그루만 F-6F 헬캣, 미국

F-6F 원형기는 1942년 6월 26일에 1700마력짜리 엔진을 장착하고 처녀 비행을 시작하였다. 이후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Double Warp 2000마력짜리 엔진을 장착했다. 이것은 크기와 무게 면에서 불리했으나 일본의 경전투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비행기였다. 1942년 10월 4일에 최초로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후 29개월 동안 12,274대가 생산되었다. 이 비행기가 출고되기 시작한 1943년말부터는 공군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으며 일본군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헬캣은 거듭된 개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성 면에서 일제 전투기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급강하 속도 및 기총 발사시의 안정성 면에서는 일본의 제로기보다 우수했다. 이 항공기의 한 가지 큰 장점은 항공모함에서 캐터필드의 도움 없이도 이륙이 가능했으며 야간 비행 성능이 우수했다는 것이다.



5. Messerschmitt Me 262

메서슈미트 Me 262, 독일

Me-262는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일 뿐 아니라, 제트 군용기로서도 세계 최초이다. 수많은 개조를 거듭한 끝에 1943년 시험 비행을 실시하여 전투기로서의 역량을 과시하였으며, 1944년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개량하라는 히틀러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로서 실전 배치되었다. 모든 면에서 독일의 다른 전투기보다 우수했으나, 엔진의 수명이 짧고 사격시 조준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요잉 경향이 커서 편대 비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❶



공군박물관장 김 영 주



기수 후미의 사격수에게 제공되어진다. 5개의 총좌에 10여 개의 총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4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당시 고익의 하중에 대한 고려로 인해 특별한 날개 단면과 이착륙시 안전한 파울러(Fowler)형 플랩을 적용하였다.

공군 선배들의 열이 서린 곳, 강릉

우리 공군의 주작전 기지가 있던 이곳이 바로 신사임당의 고향이며, 10만 양병을 주장하며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던 울곡 이이의 탄생지이기도 하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호국의 모습으로 느껴져 감회가 새롭다.

영동고속도로의 시발점이자 끝인 강릉은 영동 관광의 새로운 출발지이다. 북으로는 주문진과 양양, 속초를 거쳐 휴전선 바로 밑의 통일 전망대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동해시와 삼척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관광의 시발점이 바로 강릉인 것이다.

공군 투혼 서려 있는 '빨간 마후라의 고향'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대관령의 옛길은 모두 아흔아홉 구비였다고 한다. 그래서 강릉의 특산품인 꽃감을 한 접 등에 메고 대관령을 오르며 한 구비 돌 때마다 한 개씩 먹으면 해발 832m의 대관령 정상에 도착한 뒤에는 마지막 한 개가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차례 오가며 세어본 바로는 아흔아홉 구비가 아니라 103구비였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세어보지 못했기에 더 늘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103구비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여름을 맞이하면 누구나 먼저 바다를 떠올리고, 바다 하면 역시 탁 트인 동해 바다를 찾게 된다. 강릉 앞바다인 경포대 해수욕장 입구 바로 좌측에는 아담하게 조성된 원형의 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그 가운데에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구칠 것 같은 형태를 보이는 강릉지구 공군 전적비가 자리잡고 있어, 경포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다.

전적비는 전공탑과 비로 이루어져 있다.

교통부와 강원도 주관으로 조각가 백문기



강릉지구 전공탑





경포대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강릉지구 전적비

비문에 새겨진 이 글처럼 우리 공군은 6·25 당시 이곳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1년 10월 11일 공군의 단독 출격 작전에 따라 독자적으로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52년 1월 25일에는 미군이 수백회 출격하고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평양 동쪽 10km에 위치한 적의 군수물자 주보급로인 승호리 철교를 단 14회의 출격으로 파괴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승전탑의 옆면에는 승호리 철교 폭파 장면이 청동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당시 우리 공군은 108명의 조종사가 총 7,851회의 출격을 기록하는 대성과를 거두었다.

씨가 제작한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의 3인상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비는 1981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이 아름다운 산수와 겨레의 그윽한 향이 풍기는 고장을 붉은 이리매가 짓밟아 3년!

동해의 푸른 물결이 부딪치는 이곳 강릉에서 단독 출격 작전의 효시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라매들은 이곳을 무대로 공산군을 무찌르고 힘을 길러 한국 공군의 핵심체를 이루었나니, 해돋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의 영광 수호를 다짐하는 보라매가 오늘도 빨간 머플러 휘날리며 창공을 누빌 때, 조국의 평화는 길이 약속 되리라.

울곡 이이가 태어난 문학과 충절의 고장

공군을 상징하는 빨간 마후라의 효시가 강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6·25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영환 장군이 형수로부터 받은 빨간 옷감을 목에 두르기 시작한 것이 빨간 마후라의 효시였다.

공군의 빨간 마후라는 공중전에서의 강인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불굴의 투지와 타오르는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 공군의 주작전 기지가 있던 이곳이 바로 신사임당의 고향이며, 10만 양병을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걱정하던 울곡 이이의 탄생지이기도 하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호국의 모습으로 느껴져 감회가 새롭다.

울곡이 태어난 오죽헌(烏竹軒)은 강릉시





위) 율곡이 탄생한 오죽헌, 아래) 신사임당상

내에서 주문진으로 가는 길 좌측에 자리잡고 있다. 1976년 정화 작업에 착수하여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율곡을 잉태할 때 꿈에 용을 보았다 하여 율곡이 태어난 집을 '몽룡당(夢龍堂)'이라 하였다. 지금은 그 안에 신사임당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원래 이 집은 조선조 대사헌을 지낸 최응현(崔應賢)의 집이었다고 하며, 주위에 줄기가 검은 오죽(烏竹)이 무성하여 오죽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오죽헌에서 경포 바닷가에 이르는 중간 거리쯤, 거울같이 맑고 잔잔해서 경포호(鏡浦湖)라고 이름 지어진 호숫가를 끼고 도로 좌측에 관동 8경의 하나인 경포대가 자리잡고 있다. 원래 경포대는 고려 충숙왕 때 인근에 있는 방해정이라는 정자의 뒷산에 지었던 것을 조선 시대에 지금의 장소로 옮긴 것이며, 경포 호수와 더불어 옛적부터 시인 묵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경포대 옆에는 신사임당의 동

상과 충혼탑이 있다.

강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먹거리

경포대에서 볼 수 있는 달은 모두 4개라고 한다. 하늘의 달과 바다의 달, 그리고 경포 호수에 비친 달과 술잔의 달.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님의 눈동자에 있는 달까지 모두 5개라고도 한다. 이 둥근 달 말고도 월주(月柱: 달기둥), 월탑(月塔: 달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 탑처럼 보이는 것), 월파(月波: 달의 물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경포대. 경포대에서 바다 위로 솟는 일출과 월출을 바라보는 광경은 가히 장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포호 주변에는 조선 시대 상류층 가옥으로 강원도 내 개인 주택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선교장이 있으며, 민간 주택으로는 드물게 연꽃이 그득한 연못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활래정(活來亭)이라는 정자, 그리고 선교장(船橋莊)의 사랑채는 '열화당(悅話堂)'이라 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고려사(高麗史)> 등 귀중한 서적을 비롯한 수천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선교장은 입장료를 받고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옛 상류층 집안을 엿볼 수 있다.

강릉이 바닷가이니 즐비한 횃집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싱싱하고 쫄깃한 바다회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횃집을 조금 벗어난 송림 지역인 초당에서 나는 두부를 맛보지 않으면 경포 바닷가에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강릉시 초당동에 자리잡은 몇 군데의 초당 두부집은 유명한 초당 두부의 원산지임은 물론이고, 직접 맛보는 초두부(간수를 타기 전의 걸쭉한 두부)의 맛 또한 일품이다. 초당이라는 지명은 원래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저자 허균(許均)의 아버지 허엽(許曄)의 아호에서 따온 것으로, 이곳이 그들이 살던 곳을 알 수 있다. 초당 두부가



화랑이 차를 마시던 두 개의 샘물과 약식으로 지은 한송정

이름나게 된 까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금물이 아닌 바닷물을 두부가 단단해지는 과정에 사용하는 간수로 썼기 때문인데, 이른 아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이곳 두부 공장을 나서는 여인네들의 행렬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초당 두부의 원산지를 지나 강릉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인 송정동. 거기 빼놓고 올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아파트를 개조하여 만든 '춤소리 축음기 오디오 에디슨 과학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에디슨이 1877년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낫쇠로 만든 Tin Foil 축음기를 비롯한 많은 축음기와 오디오가 전시되어 있다. 1992년 개관한 이 박물관은 설립자 손성목(孫成木) 관장이 세계 여러 곳에서 피와 땀으로 수집한 3천여 개의 축음기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개인 박물관으로 소리의 역사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옛 화랑의 향기 가득한 '차의 성지'

동해안 상공을 지키는 공군 제3758부대. 6·25 당시 혁혁한 전과를 수립했던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도 영공 수호를 위해 우리의 장병들이 밤낮없이 경계 임무에 임하고 있다. 부대 후문 바닷가에는 한송정(寒松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곳은 원래 바닷가의 낮은 야산 위에 사선(四仙),

즉 영랑(永郎), 술랑(述郎), 남석행(南石行), 안상(安詳) 등 네 국선(國仙)의 전성기인 신라 진흥왕 전후에 세워져 있다 없어진 정자를 약식으로 복원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자는 없어지고 우물과 돌화덕만 있던 곳에 부대에서 정자를 새로 지었으며, 한송정은 신라 화랑들이 명산 대천을 순례하다 이곳에서 수련하며 차를 마시던 곳으로 다인(茶人)들에게는 '차의 성지'로 신앙처럼 받들어져 오고 있다. 원래의 한송정은 유람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귀찮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헐어버렸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 몸 바치기를 기꺼이 행하던 화랑이 심신을 수련하던 이곳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영공을 수호하는 임무가 지금도 우리 공군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릉. 그리고 바다...

우리 나라에서 해 뜨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문향(文鄕)이며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이곳,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해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는 바다. 스페타나의 교향시 <바다>처럼 강릉 바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며 가슴속의 답답함을 툭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언제나 가보고 싶은 첫 번째 장소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㉔

글·사진 / 중령 김홍식

“저 고독한 남자 중의 남자를 보라”

방송작가 주 찬 옥

나는 영화사로부터 <에어 2001>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청탁받고 어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대본을 써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멜러 드라마였기 때문에 공군을 소재로 하는 영화의 원고를 청탁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원고를 청탁한 영화사 사장이 그 잘난 남편만 아니었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절을 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No!' 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주식회사 양산박 영화'라고 꼭 자기 같은 회사 이름을 짓고 "이제 총무로는 내 것이다!"라고 혼자서 기업을 토하고 있던 남편이자 영화사 사장 박모씨는 나에게 시나리오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이것봐, 주 작가. 남자 중의 남자는 파일럿이야. 하늘을 나는 사나이들이라구. 그러니 그 멋진 남자들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구 근사한 영화를 하나 찍잔 말야. 어때, 좋지 않아?"

흥, 좋긴 뭐가 좋아? 남편은 내가 싫어할 일을 부탁할 때는 늘 이렇게 대포 같은 큰소리를 펄펄 쏘아대곤 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는 난생 처음 공군 부대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다. F-16 전투기를 타고 이륙하기 위해 홀로이 낙조에 묻든 비행장을 누비는 저 고독한 남자의 그림자라니! 나는 그리움처럼 빨갛고 새하얗게 꿈무늬에 불을 붙인 채 저물녘의 들판을 서서히 이동하는 F-16을 보면서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모중령님이 가만히 말했다.

"나는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몽글해지곤 합니다."

'하야! 그리고 보니 씨름 선수처럼 육중하게 생긴 모중령님은 다름 아니라 시인이신가 봐.' 하는 감탄과 감동을 느끼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웬만한 사람은 들어갈 시늬도 할 수 없다는 공군 작전사령부의 상황실을 견학한 감동은 데프콘 2급의 강력한 것이었다. 내가 헤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을 부리고, 거실의 그림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등 시시콜콜하게 사는 동안에 이 공군 총각들은

무진장 고생을 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같은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있었구나!

나는 시들한 마음으로 공군 영화에 접근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말 근사한 <에어 2001> 대본을 쓰겠다고 비장하게 결심하고 있다. 남자 중의 남자, 공군 남자들을 위해서라도. ♣



공군에 쓰는 Love Letter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99년도 졸업) 이 용 신

안녕하세요? 이용신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냐구요? <The Power of Air Force>,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 이미지 송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 노래를 제가 불렀답니다.

전 원래 CM 전문 가수랍니다. 워낙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1997년엔 MBC 강변 가요제에 나가 인기상을 받았지요. 제 CM 대표작은요, 초코파이 광고의 CM인 情.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꼬마가 부른 줄 아셨겠지만 그게 바로 저였답니다.

이번에 아주 운 좋게 <The Power of Air Force>를 부르게 됐어요. 처음엔 아무 기대 없이 평범한 군가이겠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반주가 나오는데, 단번에 "오 마이 갓!"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녕 군가란 말인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멜로디와 사운드에 제 고정 관념은 여지없이 무너졌죠. 이런 정말 새로운 시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에 착착 달라붙는 노래 있죠? 전 그런 기분으로 노래를 불렀죠.

전 올해 대학을 졸업했고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4년 내내 공부(?)와 노래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덧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지요. 정말로 세월이 잘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군대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면 서요? 거기다 공군은 길잡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먼저 보다는 현역을 좋아한답니다. 힘내세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공군에 계신 몇몇 분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본 공군의 이미지를 말씀드릴까요? 음~ 한마디로 'S.K.Y' 그 자체였어요. Smart, Kindly, Young. 다들 깔끔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나이에 관계없이 젊음과 패기를 간직하고 계셨구요.

이젠 파란색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제 노래가



제가 본 공군의 이미지를 말씀드릴까요? 음~ 한마디로 'S.K.Y' 그 자체였어요. Smart, Kindly, Young. 다들 깔끔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나이에 관계없이 젊음과 패기를 간직하고 계셨구요.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파란' 제복의 공군들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녹음을 하면서도 그저 노래 한 곡을 잘 불러야겠다는 것보다는 한 소절마다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르고자 노력했어요.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음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나가는 공군, 도전하는 공군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구요. <The Power of Air Force>가 제게 행운이었던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기쁨과 행운을 가져다 주길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Air Force! 여러분 파이팅! ㊦

모형 항공기에 내 꿈을 실어 보내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글라이더 2부 금상 수상자

대전 갑천초등학교 5학년 최 준 일

나는 원래부터 비행기를 참 좋아한다. 가끔씩 우리 동네 하늘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도 이 다음에 꼭 저 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맘껏 날아 봐야지.'

그런데 얼마 전에 모형 항공기 대회가 있었다. 진짜 비행기가 아닌 모형 항공기였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다. 4월 24일 예선 대회에서 별로 좋은 기록을 못 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장려상도 본선에 나갈 수 있다는 공군 아저씨의 말을 듣고서 안심이 되었다.

모형 항공기 본선 대회 전날은 하늘도 흐리고 비가

3분, 4분, 5분... 글라이더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
마득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심판 형은 놀라면서 기록지에
'무한대'를 기록했다. 물론 나도 놀랐다. 모형 항공기 대회에
처음 참가한 내가 무한대를 기록하다니 정말 기뻐다.

와서 혹시 대
회가 취소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
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에 눈을 떠보니 날씨가 맑아져서
다행이었다. 모형 항공기 본선 대회 개회
식에서 사관생도 형들의 능름한 모습을 보았
고 블랙이글의 멋진 곡예 비행도 보았다. 저 비행
기에 타고 있는 조종사는 얼마나 좋을까...

드디어 내가 글라이더를 날릴 차례가 왔다. 웬지 손
에서 땀이 나고 가슴이 뛰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글라
이더를 날리기 위해 뛰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당기는 줄을 내리려고 했지만 줄이 잘 빠지지 않아 애
를 먹었다. 결국 기록은 6초. 실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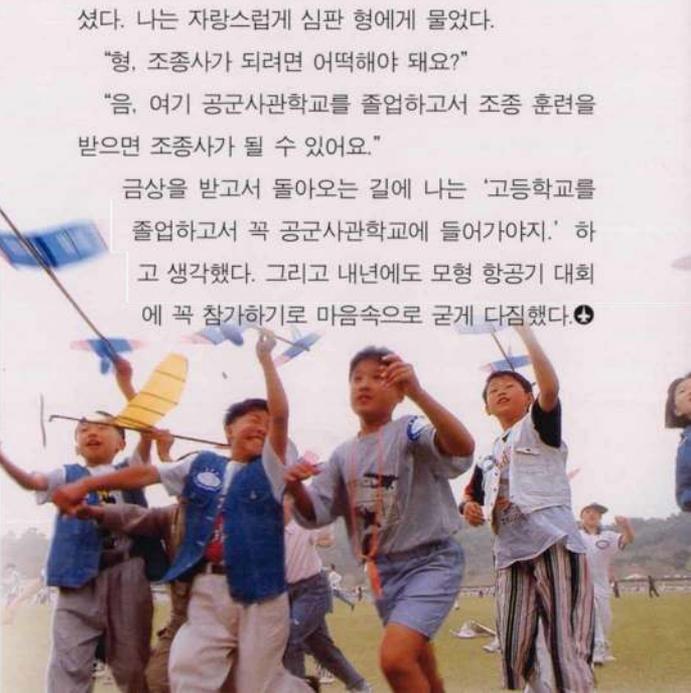
하지만 아직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
에 용기를 얻고서 다시 날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라이더를 날렸다.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어
살살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처음에는 빨리 뛰면서 글
라이더를 당기다가 높이 올라가서는 천천히 달렸다.
글라이더를 보니 수직으로 잘 올라갔다. 전번처럼 실
수하지 않고 줄을 부드럽게 놓았다. 글라이더는 바람
을 잘 받았는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날린
글라이더가 하늘 높이 날아서 우주까지 올라갔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다.

심판 형은 계속 시간을 잰다. 3분, 4분, 5분... 글라
이더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마득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심판 형은 놀라면서 기록지에 '무한
대'를 기록했다. 물론 나도 놀랐다. 모형 항공기 대회
에 처음 참가한 내가 무한대를 기록하다니 정말 기뻐
다. 선생님도 옆에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기뻐하고 계
셨다. 나는 자랑스럽게 심판 형에게 물었다.

"형, 조종사가 되려면 어떡해야 돼요?"

"음, 여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서 조종 훈련을
받으면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금상을 받고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꼭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야지.' 하
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년에도 모형 항공기 대회
에 꼭 참가하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잊을 수 없는 공군의 추억

충남 용남고등학교 교사 노 덕 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뿔다 뿔다 비행기, 날아라 ~”로 시작되는 동요가 있다. 또 “땅에는 엄복동, 하늘엔 안창남...”의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대한 꿈을 설명하신 선생님 말씀이 생각난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된 ‘하늘을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말씀에 신이 나서 더 해 달라는 아우성도 해보았던 그 추억!

필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6·25를 맞았다. 비행기 소리와 폭발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기해했던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은 바로 ‘하늘’이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군에 간다면 ‘공군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다.

공군이 되면 모두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때부터 이미 나의 마음은 공군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밴드부 시절 우연히 ‘후라이 보이(곽규석)’의 사회로 시작되는 공군 군악대의 연주를 듣게 되었다.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 나는 졸업 후 진학도 포기한 채 곧바로 공군이 되었다. 1958년도에 3개월 훈련을 마치고 군악대에 배치되어 공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비행기에 대한 꿈은 현실과 멀어지고 나의 인생은

음악 생활로 다시 시작되었다. 남보다 열심히 야간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군에서 실전을 배우니 동기생과 선배들보다 모든 것이 앞선다는 말을 듣게 되고 진급도 앞서갔다.

공군은 내 인생에 3분의 1의 기간이었지만 마음은 전부였다. 나의 젊은 청춘을 보내고 자식을 낳아 기르니 공군은 나의 은인이다. 군에

서 배워온 정신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전역했던 그 부대에 행사가 있거나 그밖에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찾는다. 나의 친정어머니에 사랑하는 후배 공군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공군을 배우고 젊음을 찾는다. 그래서 난 공군을 사랑한다.

전역한 지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이 없는 공군!

몸과 마음속에 짙게 물들여진 오늘날까지도 군인 정신과 그 의식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가끔씩 듣는 소리가 있다.

“넌 아직도 군인이니?”

정말 들을수록 즐거운 소리다. Ⓣ



물, 돈 쓰듯 아껴쓰자

우리 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
세계 평균인 973mm보다 1.3배 높은 수치이지만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 연간 1인당 강수량은 약 2,900㎥에 불과하다.

달라지는 물, 물의 개념

물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지만 물은 흔하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 세계 평균인 973mm보다 1.3배 높은 수치이지만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 연간 1인당 강수량은 약 2,900㎥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26,800㎥의 약 11% 수준이다. 94년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물 공급 능력은 연간 324억㎥로 수요량 301억㎥에 비해 약 23억㎥의 여유량이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용수 수요가 연평균 1.2% 증가되어 2011년의 경우 66억㎥가 늘어난 367억㎥로 21.9%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정된 물 공급량에 비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셈이어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지역간 물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물의 시대'

샌드라 포스텔의 저서 <마지막 오아시스>가 주는 의미는 다시금 되새겨볼 만하다.

“새로운 물의 시대가 시작됐다. 지난 시대는 물을 지배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의 시대였다. 인간들의 이러한 노력은 무절제한 댐 건설, 지하수 개발, 강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물에 대한 정치적·경제적·환경적 제한과 제약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새로운 물 절약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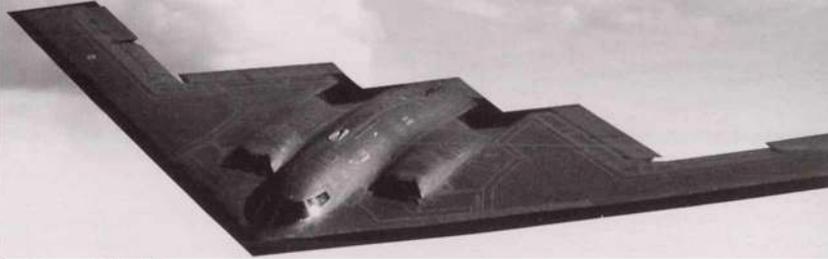
물 아껴쓰기 10대 실천 방안

1. 칫솔질이나 면도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쓴다.
2. 물을 틀지 말고 받아서 설거지한다.
3. 기름 묻은 그릇은 화장지로 닦은 뒤 설거지한다.
4. 빨래는 모아서 세탁기를 돌린다.
5. 세제는 가급적 적게 사용한다.
6. 수세식 번기에 물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병이나 벽돌을 넣는다.
7. 목욕은 욕조보다는 샤워기를 이용한다.
8. 목욕탕에는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단다.
9. 호스보다는 물통을 이용해서 세차한다.
10. 화단에 물을 줄 때는 낮 시간대를 피한다.

공군본부 환경과

꿈을 실현한 항공기

B-2 (Spirit)



1980년대초 미국은 레이더 적외선 및 시각에 의한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텔스(Stealth) 개념에 입각한 항공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첫 비행 실시로 세계에 알려진 B-2 항공기는 현재 Block 30까지 개조되어 미 공군에 17대가 인도되었으며, 20대가 추가 생산될 예정으로 있다.

레이더 전파 반사를 최소화한 스텔스기

스텔스기의 특징은 레이더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의 모서리진 부분을 완만한 곡선 구조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레이더파 흡수를 위해 동체를 검은 색으로 페인팅하고 무장, 연료 및 전자 장비를 동체 안에 탑재했다는 점이다. 또한 엔진을 동체 상부에 내장시키고 레이더 전파 반사의 주요 근원인 공기 흡입구의 특수 형상 처리와 적외선 탐지 감소를 위한 배기 냉각 시스템, 시각적 탐지 방지를 위한 배기 연기 억제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RCS : Radar Cross Section)이 기존 B-1B의 10분의 1인 0.1㎡에 불과하게 되었다.

B-2기는 작년 2월 이라크 공습에 대비해 투입 준비까지 마쳤으나 실전 배치가 미루어졌다가, 이번 NATO의 유고 공습시 2대의 B-2기가 900kg 위성 유도 폭탄으로 폭격을 실시, 처음으로 실전에 참가했다.

최첨단

기술이 만든 막강한 파괴력

미국이 자랑하는 이 최신에 폭격기는 과거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방공망 돌파를 위해 개발, '89년 처녀 비행을 가진 뒤 설계 변경을 통해 고공으로 적지의 심장부까지 침투해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 견고한 지하 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성능이 한층 개선됐다.

특히 최대 22,680kg의 폭탄을 적재하고 고도 12,200m 상공에서 유도 장치를 이용해 한 번에 907kg의 정밀 폭탄을 투하, 16개의 개별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위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이 항공기는 값이 비싸고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거액의 운용 경비와, 비만 맞아도 스텔스성이 저하되는 등의 약점으로 인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주요 성능 및 제원

- 승무원 : 4명(조종사·부조종사·무장 및 항법사)
- 최대항속거리 : 6,600nm(12,223km)
- 엔진추력 : 18,000 Lbs
- 최대 이륙 중량 : 170,550kg
- 무장 : 8×SRAM II, 8×B83, 자유투하식 폭탄(Gravity Weapon) 및 500, 750, 1,500LB BOMB 등의 재래식 폭탄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9)

항공 전략 사상 종합

두해, 트렌차드, 미첼, 세바스키와 미 항공단 전술학교(ACTS: Air Corps Tactical School, 공군이 독립 이전에 항공 전략 사상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기관), 그리고 존 보이드와 존 와든 등으로 대표되는 항공 전략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 항공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과감한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 장소, 상황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공통의 원리와 규칙, 계율과 교훈 등을 제시해 주었으며, 비록 국가간 문화와 경험의 차별성으로 인해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 전략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인 주제들인 공중 우세의 최우선화, 전략 폭격, 항공력의 경제성·결정성, 공세적 행동 지배, 정밀 폭격 개념, 중앙 집권적 지휘 및 통제, 기술의 영향, 항공력의 질적 우위를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공중 우세 최우선화 공중 우세는 적보다 우세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적군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공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대적인 우세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중 우세를 확보해야만 군 전체의 주도권을 확보·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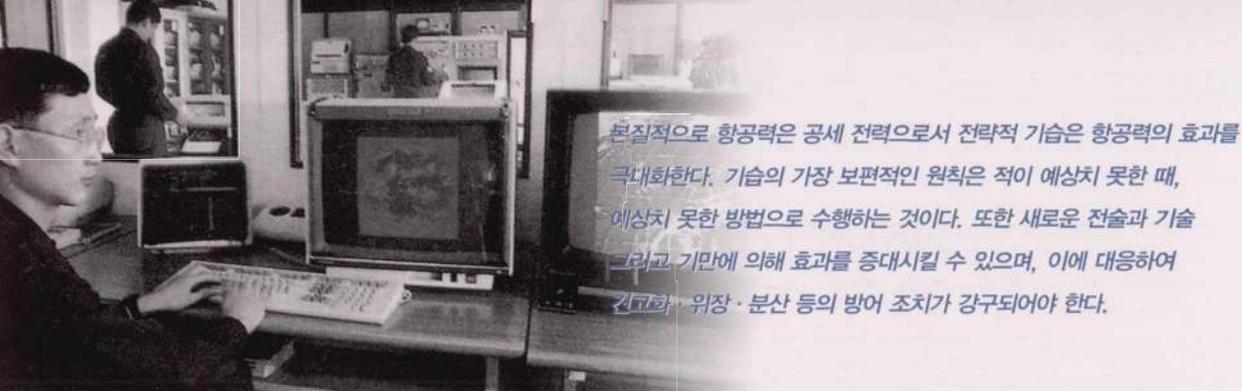
전략 폭격 전략 폭격 사상은 항공 전략 사상의 핵심 주제이며 억제 사상의 중심이다. 주요 표적은 군사력, 사회·경제적 구조, 사기 등이며, 한때는 적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폭격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전략 폭격은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운용되

어지며, 정치 목적을 직접 지향할 수도 있다.

항공력의 경제성·결정성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각군은 제한된 자원만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항공 전략 사상가들, 대표적으로 두해와 미첼은 항공력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로 “항공력이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지배 요소-적은 경비와 희생으로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는-가 될 수 있다.”는 항공력의 경제성과 결정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항공력은 가용 자원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전략적 효과를 경제적으로, 결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공세적 행동 지배 본질적으로 항공력은 공세 전력으로서 전략적 기습은 항공력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기습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적이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전술과 기술 그리고 기만에 의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견고화·위장·분산 등의 방어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적의 공세를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항공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정밀 폭격 개념 항공력의 특화된 개념 중의 하나가 정밀 폭격이다. 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핵심 포인트로서 중심(Center of Gravity)을 표적으로 선정하며, 이러한 표적에 대한 공격은 적 전체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통해 최대 이용 효과를 거둘 수 있



본질적으로 항공력은 공세 전력으로서 전략적 기습은 항공력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기습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적의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전술과 기술 그리고 기만에 의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진공**·위장·분산 등의 방어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는 장점을 가진다.

중앙 집권적 지휘 및 통제 항공력 운용에 대한 중앙 집권적 지휘 및 통제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유연하고 신속하며 광범위한 선택을 가능케 해줄 뿐만 아니라 항공력의 이점과 결정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렇게 될 때만이 지·해상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술의 영향 현재 공군이 항공기의 발명으로부터 기인하였듯이 항공전은 기술전이라는 말로 함축된다. 항공 기술은 전략과 작전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전쟁의 본질과 국가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준다.

질적 우위 '기술 우위'를 포함한 항공력의 질적 우위는 항공인들이 강조하는 기본 사항이다. "양이 많아야 질도 좋다."와 같은 경구는 지상군에나

어울리는 것이며, 공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 공군에 있어서 대량, 공격력, 전투 효과 그리고 적 시 적소에 적정량의 전력을 투입하는 것 등으로 묘사되는 용어들은 본질적으로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따지는 것이다.

항공 전략 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시의 핵무기 사용과 이에 따른 핵 전략의 확대에 의해 그 본질이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가혹한 현실은 핵 억제력의 한계를 보여 주었으며,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걸프전이라는 현대전을 통해 항공 전략 사상은 다시 한 번 '거대한 사상'으로 탄생하였다. 항공 전략 사상은 현재는 물론 '항공 우주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있어서도 항공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Core value)이다.Ⓢ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구 분	공격회수	표 적	과 정	요망결과
두 해	한 번(One Shot)	인구지역	혁 명	정치적 변화
트렌차드	순차적	군수시설, 전략물자 집결지	작전적 마비(사기저하)	정책 변화
세바스키	순차적	화약공장	"	군대 파괴
미 첼	순차적	핵심중심부(Vital Center)	국민사기 저하	정책 변화, 정책 이행
ACTS	순차적	핵심지역(Keynodes)	경제/사기 붕괴	정책 변화, 정책 이행
보이드	최단시간	적 지휘부심리(OODA과정)	정신적 마비	정책 변화, 사기 말살
와 든	병행전	적지휘부 통솔력(5 rings)	부분/전체 마비	자발적인 정책 변화

1995년 중앙일보의 JOINS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은 인쇄 신문이 지녔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했다는 대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이용의 지속적 증대를 바탕으로 일부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는 인터넷 신문이 인쇄 신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신문보다 더 빠른 신문(?)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편집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게재된다. 즉, 독자들은 인쇄 신문에 등장할 기사들을 전날 미리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의 속보성이라 칭할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은 인쇄 신문이 지니고 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은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나, 다양한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현재는 정보나 오락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격으로 인터넷 신문 역시 인쇄 신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정보와 오락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신문을 재미있게 보는 법

예를 들면 최근에 국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의 경기 결과를 알기 위해 TV를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오후 뉴스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인터넷 신문을 이용할 경우 점심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박찬호 선수의 게임 결과와 투구 내용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신문을 통한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

인터넷은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나, 다양한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현재는 정보나 오락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격으로 인터넷 신문 역시 인쇄 신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정보와 오락적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인쇄 신문도 다양한 생활·문화 정보나 오락적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은 여러 전문 업체들과의 협력,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의 기본적 성격인 하이퍼 링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주식과 재테크를 포함한 경제 정보, 국내외 저명 인사들의 인물 정보, 아이들의 양육, 음악·스포츠 등의 다양한 취미



생활, 오늘의 운세·별점·사주팔자 등의 주술적 내용, 그리고 미혼 남녀들의 큰 관심사인 미팅 정보 등 인터넷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나 오락적 내용은 독자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며 지금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위질하는 신문 스크랩은 이제 그만

인터넷 신문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기사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홈페이지 내부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하고자 한다면 이제 독자들은 먼지로 가득찬 창고를 뒤져 과거의 신문을 찾아 풀과 가위질을 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신문에 접속한 후 기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독자들은 해당 기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은 기사들을 눈으로 한 번 훑은 다음에 선택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를 실행시키면 신문 스크랩은 끝!

이런 과정도 귀찮게 여기는 독자들은 NOD 서비스를 한 번 받아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NOD(News On Demand, 주문형 뉴스) 서비스란 독자들이 인터넷 신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단어나 섹션, 지면 등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매일 그 단어를 담고 있거나 관련 섹션 또는 지면의 뉴스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E-mail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NOD 서비스를 통한다면 신문 스크랩은 단지 편지를 읽는 수준으로까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은 NOD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독자들의 목소리를 높여라

신문을 읽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냥 혀를 차거나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지나치지 말자.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들은 독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옴부즈맨 코너를 갖추어 놓고 있다. 독자들은 신문을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사의 내용과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그 내부에 올릴 수 있다. 물론 인쇄 신문에도 매일 독자 의견이 게재되지만 다양한 의견 가운데서 인쇄 신문에 실리는 내용들은 역시 신문사의 편집 과정을 통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독자들이 쓴 글 모두가 인쇄 신문에 게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인터넷 신문에 접속한 다른 독자들에게는 큰 관심 속에 읽힐 수도 있다. 이는 독자들 사이에 간접적인 토론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은 비판적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시민을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공군본부 소위 국 현 호

첫 휴가



훈련소로 들어설 때부터 사병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첫 휴가를 가는 날이겠지요. 그러나 그 남자는 첫 휴가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받아도 갈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그 남자는 군대에 와서 느꼈습니다. 동기들은 휴가를 받으면 어디부터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남자에게는 어느 곳도 선뜻 갈 곳이 없었지요. 그 남자가 초등학교생일 적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마땅히 찾아갈 여자 친구도 없었고, 휴가 기간 동안 함께 해줄 친구도 마땅치 않았지요.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남자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서울까지 걸어서 한 번 가보자고 말이지요. 그 남자의 부대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가는 동안, '보고 싶은 이름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만나자...' 그 남자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군인의 절도를 잃지 않은 자세로 걸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하염없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차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남자에게 태워주겠노라는 말을 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 남자를 태워주려고 한 차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남자는 놀랐습니다. '아,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구나.'

해가 저물어서 도착하는 마을에 들어서서 저녁을 먹고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그런데 왜 걸어가세요? 갈 길이 먼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지지요... 이런 인심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일수록 그렇게 따뜻한 정이 깊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요. 집의 따뜻함 대신에 세상의 따뜻함을 알게 해준 첫 휴가. 아마도 그 남자는 동료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첫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격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남자의 첫 휴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휴가를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닷새 되었을 때 그 남자는 비로소 고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남자에게 마음을 많이 써주신 고모님 댁에 가서 하루 묵고, 학교에 한 번 가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세상에서 갈 곳이 아무 곳도 없는 것 같았다가 고모님이 생각나고 학교가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는 외로움을 다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걸어서 서울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고모님은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희 아버지를 닮았니. 네 아버지도 첫 휴가를 걸어서 왔다. 그런데 너처럼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걸어서 왔다. 차비도 아껴서 부모님께 무어라도 하나 더 헤드리려고 걸어서 집으로 왔단다.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하신 어떤 분이 태워다 줘서 너희 아버지는 사흘만에 집에 왔는데, 너는 더 오래 걸렸구나. 그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고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남자는 한편으론 가난한 아버지 생각에 가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핏속에 유전되는 아버지의 기질을 발견한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너무나 일찍 자신의 곁에서 떠나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자신에게 남아서 첫 휴가를 걸어서 오도록 해주신 것이 그 남자는 참으로 반가웠지요.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하는 실감을 하기도 했지요.

고모님 역시도 넉넉히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첫 휴가 나온 조카, 찾아갈 곳이 없어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조카에게 고기라도 한 접시 먹이고 싶으셨던 고모님은 급히 시장을 다녀와서 상을 차리셨습니다. 그 상 앞에 앉아서 그 남자는 자꾸만 목이

메었지요.

부대의 문을 나설 때에는 ‘나는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남자. 그러나 길을 걸으면서 마주친 인정과 고모님 댁에서 느낀 따뜻함. 오래 전에 아버지도 걸어서 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그런 것이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격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남자의 첫 휴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모님 댁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따뜻한 집의 온기가 느껴졌지요. 며칠 동안 걸었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그 남자는 난생 처음인 듯 혼곤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휴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④

방송작가 김 미 라

부끄러운 나의 고백

예비역 공군 중령 문 태 일

누구든 이 가곡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을 알고 나서 가사를 읽으면,
그 속에서 6·25 전쟁 당시의 참상과 목숨을 나라에 바치고 희생하신
우리 선배 군인들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귓전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하리라.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교육방송 TV의 한문 강좌를 시청하다가 우리 나라 가곡인 〈비목(碑木)〉의 가사에 나오는 단어들의 한자에 대한 해석과 이 가곡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직업 군인 출신이면서도 전쟁이나 희생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그 동안 종종 이 가곡을 그저 무심코 들어 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비목〉의 제목과 가사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전혀 모르고서 단지 오래된 노송이나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나무 이름 정도로만 생각하며 때로 불러 보기도 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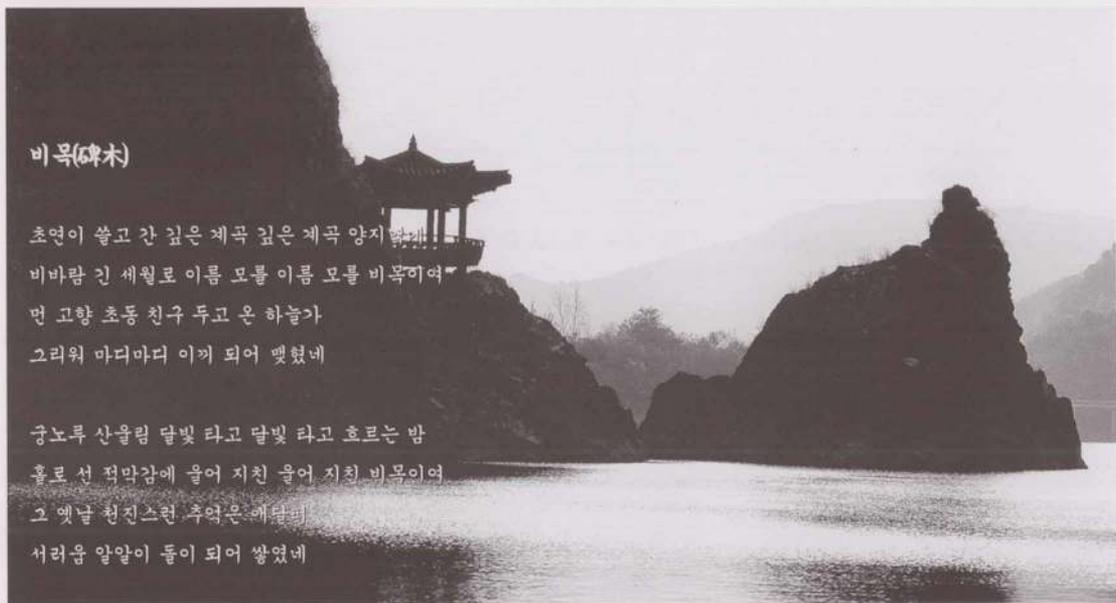
비목, 고귀한 희생을 위한 노래

설명에 의하면 〈비목〉이란 제목의 뜻은 나무로 만든 묘비를 말하며, 이 가곡의 가사 첫머리에 나오는 초연(硝煙)이라는 단어는 총이나 대포에 화약이 불붙을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뜻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가곡의 내용은 그저 단순한 남녀간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아니며, 6·25 전쟁 당시에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여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시다 젊은 나이에 청춘의 꽃도 제대로 피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

한 희생을 기리고, 비통함과 애절한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알았다.

〈비목〉은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국악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한명희(韓明熙·1938년 출생) 교수께서 지으셨다. 그분이 ROTC 장교로 비무장 지대에서 복무하시던 백암산과 향로봉 주위는 6·25 당시 화전 발전소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수많은 병사가 피를 흘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뼈와 해골이 나오고 군데군데 녹슬고 찌그러진 첩모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약간 순찰중 달빛 아래서 발에 채인 이끼가 잔뜩 끼고 이름도 모두 지워진 상태로 썩어가고 있는 나무 묘비를 발견하고 이 가곡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한명희 교수께서는 이 가사를 현재 한양대 음대 교수 및 서울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장 겸 지휘자로 계시는 장일남(張一男·1928년 출생) 교수께 작곡을 부탁하셨다고 한다. 장일남 교수는 이 가사를 보고, 특히 그중에서도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이라는 구절에서 6·25 때 격전지인 철원에서 전투 경찰로 복무하



비목(碑木)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쪽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피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면서 직접 체험했던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고, 그날밤 피아노 앞에 앉아 즉석으로 곡을 지었다고 한다.

숭고한 애국혼을 위한 기도

〈비목〉. 누구든 이 가곡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을 알고 나서 가사를 읽으면, 그 속에서 6·25 전쟁 당시의 참상과 목숨을 나라에 바치고 희생하신 우리 선배 군인들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귓전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하리라. 또한, 올해 새로이 맞이하는 현충일에는 좀더 숙연한 자세로 애석하게 산화하신 그분들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리라.

나는 사관학교 생도 기간을 포함해서 24년간을 군에 몸담고 일하며 생활했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실전에 참가해 보지 못하고 전역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투와 희생의 현장에서의 고통과 처절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현역 시절 아내와 함께 신경 마비로 꼼짝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6개월 정도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순수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절실히

깨달았으며, 그후로는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다. 어찌면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 봉사 활동도 실제로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그 고결한 희생과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통함과 애절한 수많은 사연들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가사에 나오는 암놈 궁노루(사향노루의 일종)가 짝을 잃고 밤이 새도록 구슬프게 울었다는 울음 소리의 몇천 배 아니 몇만 배가 훨씬 넘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제 여기서 6·25와 월남전 등 여러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과 군복무 중에 순직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며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한다. 아울러 우리 나라에도 〈비목〉과 같이 훌륭한 음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외국의 진혼곡이나 개신 행진곡 또는 〈그린 베레나〉나 〈전스 앤드 드럼스〉와 같은 음악을 부러워한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년 현충일을 전후하여 반드시 국립 묘지를 방문하여 참배 드릴 것도 굳게 다짐해 본다. ♣

'99 국가보훈처 주최 현충일 추모헌시 공모 최우수 입상작

유월의 소리

16전비 준위 강 상 료(姜相律)

유월의 아침
이름모를 들풀 속에서도
움트는 꽃들의 소리없는 외침이
단비 내리는 호국의 성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포화 속 붉게 멎든 날
어머니의 가슴에 묻고 간
전설의 슬픔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

세상 끝까지 증오할 일과
몇천 번 용서할 일들을 지우며
통한의 눈물을 씻고 일어설
회한의 아픔을 달래는 자리에

잠들어 묻히기를 거부하는
유월의 소리를 들으며
그날의 분노를 삼키는
긴 밤의 슬픔들을

천길 어둠 깊이 묻고 가야 할
그 길은 아픔의 뿌리까지
조국을 위해 투혼을 불태워온
님의 꽃무덤에 한 줌의 불씨를 시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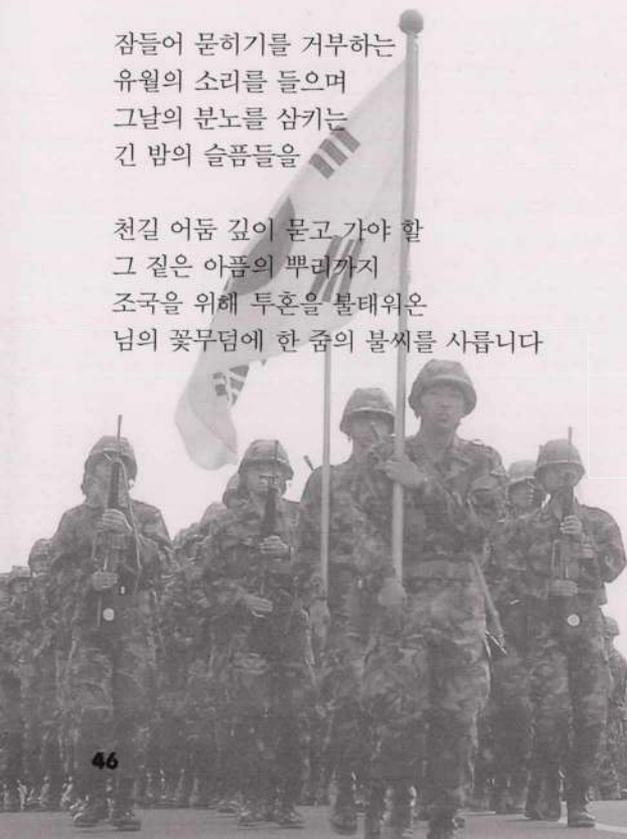
유월의 들녘에 타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안고
젓지 않는 분노와 절규를
능선과 능선을 잇는 피어린 격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순결한 젊음을 불태운
그 숭고한 충혼이
온 겨레의 가슴에 살아 숨쉬나니

호국의 영령이시여!
겨레에 바치신 고귀한 넋이여!

님의 품속에 넘쳐 흐르던 선홍의 충절은
통한의 언덕을 넘어
시대를 밝히는 햇불로 타올라
영원한 조국 안위를 호령할지니

의연히 선 불멸의 수호신으로
민족의 제단에 바쳐진 꽃다운 영혼은
풀씨처럼 날아올라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목마른 대지 위에 꽃비되어 내리나니
이제는 한 방울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들 간절한 기원으로 엮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
하늘로부터 이어진 젖줄입니다
누군들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 존엄은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

민족의 이름으로 핀 꽃이어!
거룩한 숨결의 자취는
님의 혼이 묻힌 조국 강산에
오늘도 꽃은 피고 태양은 솟고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는 개척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듯
님의 눈빛에 여울지던 나라 사랑의 정신
그 높은 겨레 사랑의 얼은

슬기로운 민족 응비로 솟구쳐
개혁과 변화의 흐름으로
제2건국 운동 물결과 함께

우리들 행복한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이 무너져도 기본과 원칙을,
도덕과 양심을 지켜가는
늘 푸른 백의 정신으로 깨어나

희망의 이정표를 향해
절망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인동초처럼 결연히 일어서는 민족 저력이
반만년 역사 위에 움트고 있습니다

도약으로 선진 조국을 여는 새시대
환희에 찬 영광을 안고
평화의 새벽 종소리 들려오는
님의 하늘가에 이제는 푸른 깃발을 달고

정의와 자유 민주 통일의 뜨락에서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빈손을 맞잡고, 신뢰하여 얼굴 부비는
조국의 하늘을 이고 서서

승고한 희생의 참뜻 새기고 가신
호국의 님 앞에 머리 숙이는 추모의 자리에
다시 불러야 할 조국 찬가를 부르겠습니다

유월의 소리를 듣는 희망의 새 아침에...

* 99 현충일 추모헌시 현상공모에서 현역 군인으로서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상률(姜相律·54세) 준위는 16선비 이전청비대대에서 계기 반정으로 안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작품 활동과 함께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이사와 예천지역 문화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After you’ 와 ‘Follow me’ 의 정신

20전비 중령 김 회 영

우리 군은 북괴의 전쟁 위협에 대하여 100%의 전비태세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평상시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사사 아츠유키의 <평상시의 지휘관, 유사시의 지휘관>(연경문화사 刊)이란 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

평상시에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전시에는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지휘관에게 필요한 정신은 한 마디로 평시에는 After you[신사가 되고], 유사시에는 Follow me[무인이 되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에서는 생도를 위한 예절 교육으로 <캐디켓(Cadiquette)>이라는 명서를 필수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다. ‘캐디켓’이라는 말은 Cadet(사관생도)과 Etiquette(예절)을 합성한 것으로서,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미국에서 군

인 신분에서 요청되는 명예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허리를 쭉 편 자세, 손질을 깨끗이 한 단정한 복장 등의 멋진 외관, 그리고 높은 인격과 교양을 겸비한 평상시의 신사로서의 자세가 전시에 부하를 이끌고 “나를 따르라(Follow me).”를 외칠 수 있는 무인으로서의 지휘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은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니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군인으로서의 명예의식은 군 스스로가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평상시에 군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After you[신사] 정신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After you 정신이란 무엇인가? 미해군 사관생도 필독서인 <신사로서의 해군

장교>에서는 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청결한 사람, 부자라고 하여 존경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경시하지 않는 사람, 지더라도 비명을 내지 않고 이기더라도 자만하지 않는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대담하더라도 허풍떨지 않고, 관대하면서도 기만하지 않으며, 분별이 있고, 빈둥빈둥 놀지 않는 사람, 세상의 재화 중에서 자기 것만을 취하며, 타인에게도 그 사람 분량만큼만 갖게 하는 사람.”

평시에 이러한 모습이 비추어질 때 전시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용맹스러운 군의 위상을 국민들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길

한편,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의 임무는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모든 지휘관에게는 ‘Follow me(나를 따르라)’의 용기가

평상시에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전시에는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지휘관에게 필요한 정신은 한 마디로 평시에는 After you[신사가 되고], 유사시에는 Follow me[무인이 되라]라는 것이다.

필요하다. 펭귄에게는 '펭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남극 바다 밑에는 펭귄의 천적인 바다표범이 숨어 있어 최초로 뛰어드는 한 마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펭귄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서로 밀치며 한 마리를 희생양으

모두가 청년 지휘관이라 할 것이다)들은 부하를 거느리고 업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현실 자체를 느끼며 군생활을 체험하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 고급 지휘관이 되어 갈수록 현장 그 자체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부하들과 함

휘관 정신이 평상시에 갖추어져야 함을 사사 아츠유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청년 지휘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유사시의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 때가 있는



로 삼아 물 속이 안전한지 확인을 한 후 모두가 물 속에 뛰어든다. 저지는 이 펭귄 증후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유사시에 있어서 지휘관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무용(武勇)'이라고 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해보고자 하는 의욕과 왕성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에 뛰어든 청년 지휘관(다스릴 하급자가 있다면

께 직접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평시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전시와 같은 비상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 하급 지휘관뿐만 아니라 모든 고급 지휘관은 청년 시절의 현장 지휘관과 같은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하여도 부대원을 이끌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지

것이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청년 지휘관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한다. 평상시에 부하들과 일심 동체 생활을 통한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After you와 Follow me 정신을 길러나갈 때 우리 군은 더 확고한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

우리는 20대

복지단 기지대대 병장 김민규

지난 외박 때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동창은 내가 입대한 그해, 22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도 하나 있는 한 가정의 주부이자 엄마의 길을 걷고 있다. 무척 친했던 내게 청첩장을 보내와 결혼을 축하해 주기도 했다.

행복 속에 깃든 우울

오랜만이라 그녀는 무척 반가워했지만 웬지 모르게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진다.

시장 가서 저녁 준비하러 먼저 간다기에 짐을 들어주고 집으로 걸어가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요즘 생활은 어때...?”

자신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단순해져버린 것에 다소 실망한 모양이다.

가장 많이 우울해지는 일은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란단.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 등의 많

“요즘 생활은 어때...?”

자신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단순해져버린 것에

다소 실망한 모양이다.

가장 많이 우울해지는 일은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란단.

은 기회를 결혼의 보조금으로 내버린 것 같은 말투였다. 두드러진 문제가 없는 삶과, 결혼해 아들까지 있는 그녀의 알뜰한 살림 솜씨, 다정한 신혼 생활, 건강한 자녀, 그런 것들은 그녀의 꿈이나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이루어낸 현실일 뿐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녀가 바란 건 결혼과 무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던 건 그녀의 성실한 성격이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일 수도 있다. 정작 그녀 자신이 상실감과 절망에 움츠려 있다면 이건 인생의 모순일까 아니면 가정에 대한 배반일까.

미래의 '필승'을 위한 '충성'

팬스레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

과 비교되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한 미래의 소원도 마냥 묻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갈수록 가정에 얽매일 것이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뭔가 해보려는 그녀에게(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란 책을 선물했다. 우체국 문을 나서며 뿌듯한 마음 때문인지 내 몸이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할 수가 없었다. 날아갈 것만 같았다.

‘너는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사는가, 누구에게 구속되어 사는가, 무엇으로 끌려가는가, 내가 서 있는 주위를 보게 된다.

20대를 밀도 있고 순도 높게 보내고 싶다. 20대인 현재에 ‘충성’되게 생활하면 3,40대에 ‘필승’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 가는 삶, 그것이 지금의 나의 소원이다! ➡

6월의 공군 역사

- 6. 1. 항공안전관리단 창설('95)
- 6. 7. T-37 훈련기 도입('73)
- 6. 7. 최초의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76)
- 6. 10. 제1기 사관생도 입교('49)
- 6. 12. 복귀조종사 이운용 대위, 이인선 소위 커순('55)
- 6. 14. 공군 올림픽지원단 발대식('88)
- 6. 20. F-86F 전투기 도입('55)
- 6. 25. 6·25 한국전쟁 발발('50)
- 6. 28. 한국 공군 최초의 월남파병('65)
- 6. 30. C-54 수송기 도입('66)

6. 10. 제1기 사관생도 입교('49)

육군항공부대 창설이래 장교 충원은 과거 항공경험을 가진 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였으나, 공군의 정규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1949년 1월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김포기지)한 후 6월 10일에 중학교 6년(구 중등교육제도) 이상의 유자격자 97명을 선발하여 제1기 사관생도로 입교시킴으로써 공군 정규사관 교육이 시작되었다. 1기 사관생도들은 전쟁의 와중에서 전투작전과 사관교육을 병행한 끝에 1951년 8월 5일 진해기지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제1기 사관부터 3기 사관까지는 2년간의 단기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으며, 4기생부터 4년간의 정규사관교육을 마치고 졸업하였다.



6. 20. F-86F 전투기 도입('55)

한국전쟁 이후 북괴는 공군력을 급속히 증강시켜 MiG-15 전투기 3개 사단을 보유하자, 우리 공군도 전력증강과 공군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군은 공군 제트화를 강력히 추진, 1954년 11월 29일 한·미 고위층간에 한국 공군 제트화에 합의, F-86F 전투기가 도입됨으로써 대망의 제트기를 보유하게 되어 우리 공군의 제트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위기의 성전 1

월남전 이후 25년만에 한국군이 파병된 국제 전쟁인 걸프전. 걸프전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지만 사실에 입각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책은 드물다.

저자 이영남 씨는 연합군과 이라크 군과의 걸프전 진행과 참상, 원인에 대해 걸프전을 직접 체험한 현지 무관으로서 생생한 현실 르포형 식과 6·25 한국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계 주요 전쟁을 요소요소 비교하여 세계 전사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느낌이 들도록 책을 만들었다.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 중 1권이 이 책은 크게 2장으로

구분되며, 첫째장은 전쟁 전야를 포함한 전쟁 개시 후 일주일 간의 전황인 다국적군의 이라크 공격과 당시 정치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둘째장은 한국군의 의료지원 단 참전과 전쟁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라크 상륙작전과 사막전 등의 다양한 작전 전개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미국과 영국의 「사막의 여우」라는 작전명으로 개시했던 이라크 공격 2차전에 대한 발발과 종료, 그리고 최근의 근황까지도 계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이영남 지음/338면/도서출판 백암/9,500원

Book

계룡산맥은 있다

‘배달민족의 영산(靈山)’, ‘한반도 최고의 명산’으로 불리는 계룡산에 대한 모든 것을 해부한 책자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책은 ‘계룡산맥은 있다’.

이 책은 이길구 씨가 지난 5년간 직접 답사해 기행 형식을 띤 산행문으로 계룡산에 대한 역사와 자연환경, 등산로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계룡산을 계룡산맥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산경표(山經表)를 처음으로 제작한 후 천황봉을 중심으로 28개 봉우리를 간맥(幹脈)과 지맥(枝脈)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완성하기도 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는 계룡산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이 산의 변천과 역사를 알려주고 있고, 2부에는 계룡산의 위치 및 지세,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3부에는 계룡팔경과 주요 등산로를 소개해 계룡산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의 백미(白眉)인 제4부에서는 용의 몸통에 해당하는 함지봉(咸芝峯) 등 간맥 10개의 봉우리와 용의 다리에 해당하는 문필봉(文筆峯) 등 지맥 18개의 봉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길구 지음/460면/누리문화사/20,000원

자동차에 대한 법률상식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산야 교외로 나들이가 잦은 이 시기에 예고없이 찾아올지도 모를 교통사고에 슬기롭게 대처할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찾아 함께 법률여행을 떠나봅시다.

먼저 즐거운 기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운전자 자신은 형사 및 징계처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진급 및 포상제한, 명예전역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위 동료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게 되니 정말 무서운 범죄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동료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하거나 방조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징계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협력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긴 후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치어 사망시킨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고 불명예 전역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알리거나 병원으로 데려가 다친 데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아이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는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른 여름철 해이한 마음에 열쇠를 꽂아둔 채 옹무를 보다가 차를 절취당할 경우 절도범이 낸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있으므로 차열쇠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라도 즐기거나 음주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운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우리의 가족이자 동료처럼 정성스럽게 대할 때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잠깐 법률상식

1. 교통사고가 나면 잘못이 있든 없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합니다.
2. 동승자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핸드폰 사용을 제지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자동차를 판 경우 대금전액 수령 후 서류와 자동차를 인도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4. 동승자가 차문을 열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인과 문을 연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차문을 열 때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법률상담은 법무감실 (요)6404 또는 각급 부대 법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국내·외 위탁교육요원 선발 계획

군의 전문화와 국방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공군본부에서는 2000년도 국내·외 위탁교육요원을 선발합니다. 국내 학위 과정, 국외 지참대, 병과교육요원을 지휘추천, 시험성적, 분야심사, 중앙심사 등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시험은 6. 16(수) 공사(국내·외 학위/국외 지참대) 및 공대(국외 병과교육)에서 TOEFL 및 ECL 시험을 보게 되며, 6월말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문의 : 각 부대 교육훈련 담당, 효성대-1351, 2)

2. 공군관련 역사자료 수집 및 6·25전쟁 참전수기 공모

공군본부에서는 공군 창군 및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공군관련 역사자료의 수집과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수호하신 공군 선배님들의 전투 경험담을 모아 수기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역사자료 수집대상은 독립군 및 공군창군, 6·25전쟁 및 월남전, 대간첩작전 등의 공군관련 문서, 기념물, 사진 등입니다.

(문의 : 02-506-6252~6, 042-552-6252~6)

3. 공군 창작전 작품 공모

공군본부에서는 장병 및 군우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공군문화 창달을 위한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 창작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작품내용은 공군의 활약상 및 생활상, 영공방위 현장, 기타 다양한 소재의 예술 창작품으로 공모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일러스트, 사진, 프라모델, 공예입니다. 6. 29(화)까지 접수하며 심사결과는 7월 중에 발표됩니다.

(문의 : 각 부대 정훈참모, 효-6239, 042-552-6239)

4. '공군 평론' 원고 모집

공군대학에서는 '공군 평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내용은 공군 운영 전반에 관한 논문, 항공전략·전술 분야 및 항공우주과학 분야, 군사정세 및 국제정세 분야, 공군 교리발전 및 공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이며, 약력 및 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 바랍니다.

(문의 : 자운대-4332, 042-870-4232)

* 성실한 의견을 주셨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호 당첨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현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찬란한 슬픔으로 가득한
유월의 대지...
고이 잠들어 계신 당신 곁에 서면
내 가슴에도 한 송이 꽃이 핍니다

더 많은 싹들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려고
당신은 이 거룩한 대지에
한 줌 거름이 되셨지요
아름다운 당신의 영혼 지금도 남아
유월의 푸르디푸른 하늘에
가장 순결한 꽃으로 다시 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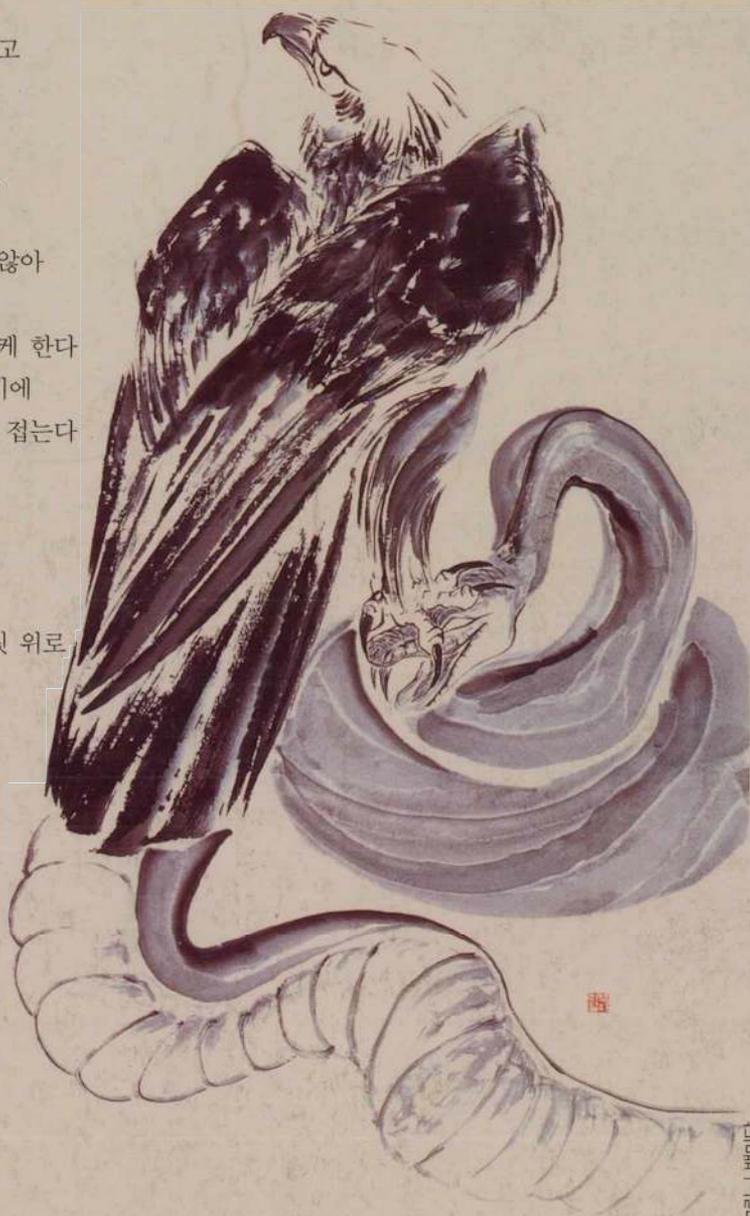
이제 우리 가슴 속엔
당신이 남겨주신 소중한 희망
새천년의 벽차고 눈부신 미래 앞에서
저마다 한 움큼씩 퍼올립니다



독수리

한글문화회 부회장, SBS라디오 센터장 유 자 효

이상이 높아
하늘을 난다
하늘로 하늘로
올라갈수록
땅 위의 일들은 작아지고
하늘은 더욱 커진다
날개를 펴면
사해를 덮을 만한 용기,
날카로운 눈초리는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아
때로 내려 꽃히는 힘은
땅 위의 생명들을 전에게 한다
평원의 안식을 거부하기에
벼랑 끝 등지에 날개를 접는다
깎아지른 바위 위에서
영토를 굽어보는
제왕의 풍모,
높게, 빠르게, 크게
하늘로 차오르는 날갯짓 위로
왕관처럼 찬란한
빛의 부서짐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새로운 비상

대한민국 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4-1994

독자엽서

공군내
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보내는 사람

이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